제2회 도서문화연구원 섬의 인문학연구단(HK) **섬의 인문학 콘서트**

소안도 섬 노래로 한국사회를 보다

다큐영화, 소안의 노래

일시 | 2017. **5. 11.** (목) 오후 4시

장소 | 목포대 70주년기념관 정상묵국제컨퍼런스룸

주최·주관 도서문화연구원

제2회 도서문화연구원
섬의 인문학연구단(HK) 섬의 인문학 콘서트

초대의 글

다큐영화, '소안의 노래'를 목포대학교에서 상영합니다.

소안도는 일제강점기 때 항일독립운동의 성지였던 곳입니다. 엄혹한 식민지 시대에 섬 주민들이 똘똘 뭉쳐 친일지주를 물리치고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습니다. 소안도 내에서 일제의 강점에 항거하였고, 소안도를 벗어나 서울, 광주, 만주, 일본, 중국 등지에서도 항일운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소안도 사람들은 독립과 항일을 가슴에 새기며 민족해방가, 독립군가, 애국가 등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소안도 섬사람과 그 노래가 영화가 되어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강봉룡

- 다 음 -

○ 주제 : 다큐영화, 소안의 노래

○ 일시: 2017년 5월 11일(목) 16:00~18:00

○ 장소: 70주년기념관 정상묵 국제컨퍼런스룸

○ 주관/주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 프로그램

순서	시간	소요시간	내용	진행
인사말 및 소개	16:00 ~16:10	10분	-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 김경자 감독	송기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영화 상영	16:10 ~17:30	80분	- '소안의 노래'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대담 및 노래	17:30 ~18:00	30분	대담 : 김경자, 나승만, 최성환 소안도 주민(이대욱, 김중배, 김영애, 박대님)	

(58645) 전남 목포시 송림로 41번길 11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도서문화연구원
전화 : 061-260-1703, 이메일 : islands@mokpo.ac.kr

목 차

1. <소안의 노래> 소개 …… 7

2. <소안의 노래> 제작노트 (김경자) …… 8

3. <소안의 노래> 스텝구성 …… 27

4. <참고자료>

1) 해방의 땅 소안도 (이균영) …… 28

2) 일제하 소안도 민족해방운동가의 수용과 전승(나승만)…… 56

5. 김경자 감독 프로필 …… 79

365일 태극기를 다는 **태극기의 섬**

우리 소안면 토지는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고종황제 동생 이기용 남작의 소유다'
너희들은 이기용 남작의 소작인이다.

소안의 노래

완도의 작은 섬 소안도는 일제에 의해 토지를 빼앗기게 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송내호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어 항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섬이었다. 당시의 소안도 항일운동은 노래와 함께였었고,
항일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전쟁 전후로 더 큰 피해를 받게 되었다.
소안도 사람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땅이었고,
노래였고, 주체적인 삶이었다.

다큐멘터리 | 80분 | 연출 김경자 | 전체관람가

구성 김희은, 김좌현 **촬영** 유명상, 김경자, 이광수, 김소연, 김선희, 서설, 김희은, 김좌현, 이순학, 이정훈 **그래픽 편집** 유명상, 백종록, 이경호 **편집** 김경자 **나래이션 목소리** 이주연, 김시내 **음악** 김신혜 **춤** 이성순 **합창** 소안중학교 2학년1반, 소안초등학교 **합창지도** 조인호 **도움주신분** 박강배, 김준근, 정병호, 나창진, 박보미, 김문희, 신동호, 김민석, 이동호, 김승미, 김영순, 문다성, 강제윤, 소안항일운동기념관, 광주독립영화제 **촬영장비대여**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로드매니저** 강은선 **동행친구들** 김정연, 박미영, 최민희, 사이공, 김시내, 김정연, 박보라미, 박금순, 김경숙, 문정미, 양애란, 류현정, 최영미 **감사드립니다** 이은진, 김정희, 이승남, 서은현, 놀이패 신명, 소안도 주민분들, 소안중학교/초등학교 학생 선생님들

1. <소안의 노래> 소개

제목: <소안의 노래>
런링타임: 80분
형식: 다큐멘터리
상영: 2015년 광주독립영화제 개막작
2016년 부산평화영화제 본선경쟁부문 상영(드넓은푸른공감상수상)
제작기간: 2008년~2015년

시놉: 완도의 작은 섬 소안도는 일제에 의해 토지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리고 송내호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어 항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섬이었다. 당시의 소안도 항일운동은 노래와 함께 였었고, 항일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전쟁 전후로 더 큰 피해를 받게 되었다.

연출의도: 소안도 사람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땅이었고, 노래였고, 주체적인 삶이었다. 그들과 그들의 이야기는 망각과 기억사이에서 살고 있거나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그리고 이것은 과거만의 일인가?

부산평화영화제 사무국 추천평: <소안의 노래>는 작은 섬 소안도 민중들의 항일 투쟁 정신을 기리는 노래다. 역사를 기억하는 어르신의 증언을 8년간 채록한 끝에 완성된 작품이다. 영화는 오래된 미래처럼 현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2. <소안의 노래> 제작노트

김경자(영화감독)

1부 작업의 시작

■ 2008년 여름. 작은 섬 소안도를 만나다

평화포럼에서 완도의 작은 섬 소안도에서 문학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주었다. 처음 소안도라는 섬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신문기사를 찾아보다가 작은 섬인데도 일제시대 항일운동을 열심히 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섬에서, 어떻게 작은섬에서 큰 저항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소안도에 가 보았다. 이렇게 나의 첫 다큐멘터리 영상작업이 시작되었다.

소안도에서 처음 만나게 된 어르신이 김남천어르신이었다. 그 어르신의 형님도 항일운동을 하였으나, 당신의 형님 이야기는 많이 하시지 않으셨다. 이웃에 사는 최형천선생님이나 정남국선생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그분이 생각하기에 소안도에는 자신의 형님 말고도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

이 있었다. 특히 그분들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어르신에 매료될 수 밖에 없었다.

“그때 상당히 열씸히 선생님들이 갈쳤어요. 절대 자기만 알고 그래서는 안 된다. 신광희씨 같은 분은 완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세상만 해도 완도읍 사람들이 백정들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래요. 아조 성격이 파랏파랏했는데.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평등주의 원칙 꼭 지키고.”

그래서 그 섬에 가고 또 가고 했다.

2부 작업의 과정

■ 소안도 안개속을 걷다

공부를 해도 소안도에 다가가기 어려웠다. 역사에 대한 짧은 지식과 광주에서 생활인으로 살다보니 소안도에만 매달리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돈이 생기면 소안도 배를 타곤 했다. 배 안에서, 그리고 소안도 숙소에서 공부하고 공부해서 소안도에 대해 알려고 많은 애를 썼다. 소안도 역사를 여러 번 정리하고 공부하였다.

▷ 토지 소유권 반환 투쟁
최성태, 김사홍, 신완희 등이 소안면민대표로
1909년부터 1922년까지13년간의 투쟁

▷ 교육을 통한 항일의식고취
1913년 소안도 최초 교육기관 사립중화학원 설립
김사홍 설립, 송내호, 김경천, 강정태, 최형천 등 교사들을 중심으로
항일사상/애국사상 고취
1923년 사립중화학원에서 승격된

사립소안학교 설립해서
항일사관 양성

▷완도만세운동 주도
1919년 3월 15일. 송내호 주도하에
정남국, 최형천, 신준희, 김경천, 강정태, 백태윤 등 완도만세운동
김민곤, 김상곤, 김제은 태극기 제작배포

▷ 항일비밀결사체인 수의위친계 조직
1922년 송내호 주도하에 조직.
정남국, 임재갑, 박화국 권유섭 이형춘 이형두 간도파견하여 항일운동
신우승 북경에 파견

▷ '배달청년회'와 '노농연합대성회'조직
1923년 소안주민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중활동을 전개하고,
700여명의 주민들을 포용하는 '소안노농연합대성회'조직
1924년 강정태, 최형천, 송내호 신준희 등 완도청년연합회 완도노동연합회 조직
1925 전남해방운동자동맹 참여, '필연단'을 조직하여 전라도 소작쟁의 지도/지원
1924년 소안노농대성회 사건으로 13명을 구금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소안인이 감옥에 자주 드나들게 됨.

▷사상단체 살자회조직
1926년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비밀결사조직
강연회와 독서회 등을 통한 학습
'우리는 상호부조와 정의에 희생할 정신을 갖춘다'

▷ 신간회참여
1927년 신간회 간사였던 송내호는
신간회 완도지회를 결성.
송기호, 정남국, 신준희, 최형천 등 참여

▷일심단 조직
1927년 송내호 지도. 이월송 단장

김장안, 위경양, 이수산, 정광택 등 일본 파견
김홍기, 김광재, 김재수 등 광동군사학교 파견
'우리들의 몸은 조국독립을 위해 바쳐버리고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확신으로 조국광복까지 싸운다'

▷ 소안의 배달청년회를 해체 선언하고 완도청년동맹 소안지부 결성
1927년 <선언>문 제작 및 인쇄.
'민족해방운동의 선구대가 되자.
조선총독 폭압정치를 대중 앞에 여지없이 폭록하자.
대중의 정치적 의식을 각성시키자'

▷송내호 장례
1928년 배달청년회 사건으로 목포형수소 수감중
폐결핵악화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영면
신간회 경성지회 동지장으로 장례

▷광주학생운동참여
1929년 비서리 출신 이명지, 정석규 등 광주학생운동 적극참여

▷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운동
1926년 정남국 주도하에 김석동, 이장백 이윤연 김영안, 김영식,
이형인, 김종호, 신봉재, 김수천 박동수 등 노동운동.
재일본 조선노동총동맹에서 주도적 활동
1927년 오사카에서 총독부실정 반대실행위원회 주도
1933년 조선인실업자대책위원회 위원장(정남국) 삼신철도 해고반대투쟁 주도
1934년 친일단체 상애회 테러사건 주도

■ 소안도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은 항일운동가였다

소안도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다. 만났던 많은 이들이 자녀이거나 친척이었다. 놀라웠다. 20여 분의 서훈자와 항일운동을 열심히 하였다고 소안항일운동기념관에 모신 분들만 88여 분이 있다.

▷ 소안도출신 항일운동 서훈자

송내호, 정남국, 김사홍, 김경천, 최형천, 송기호, 정창남, 이갑준, 신만희, 백형기, 박기숙, 신준희, 강정태, 정석규, 김홍기, 이정동, 이각재, 박홍곤, 김남두, 김통안

▷ 소안항일운동기념관에서 밝힌 소안항일운동가

신광희, 주채도, 박화국, 최평산, 위경양, 최성태, 신완희, 이순보, 신동희, 이강락, 신우승, 김명길, 백태윤, 이준화, 이월송, 이명지, 박사욱, 김장균, 최익재, 이형두, 강경도, 이평존, 최병우, 이수산, 최홍길, 김창륜, 문남균, 김종호, 김병섭, 김현곤, 박득수, 김남곤, 김양숙, 최기정, 신길조, 이재섭, 김응섭, 신구희, 김득운, 이남두, 김경규, 고오길, 김채원, 박경규, 김경태, 신홍희, 이형인, 김장안, 김영안, 신봉채, 김수천, 김홍섭, 김석동, 이장백, 이윤연, 김영식, 김민곤, 고산, 백성안, 김민혁, 박채신, 박동수, 부찬옥, 정해성, 황봉두, 김제은, 이병제, 신용균, 최익재

■ 한사코, 해방 후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다

소안도는 당시 사회주의계열의 항일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전쟁전후에 희생자가 많았다. 전쟁 전후의 소안도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남천어르신께 여러 번 부탁드렸지만 한사코 마다하셨다. 본인이 소상히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역사의 레드컴플렉스 때문이었다. 이것은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소안도에는 현재였다.

“그 시대 얘기를 해주라는 사람들이 상당 숫자가 있어요. 전남대학교 사회학과선생 정근식씨라고. 그 양반은 뭔 얘기를 해달라고 보도연맹 얘기를 해달라고 졸라도 그 때 시절만 해도 군사독재정권시대이고 이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자꾸 해주라고 졸라도 또 내가 소상한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얘기 해봤자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상당 숫자가 시행됐던 것만은 사실이고, 그 후로 면 대회에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250명 좀 더 되게 실형을 받았는데, 장정들이 25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죠. 또 의심을 받을만한 사람들은 어찌됐던 그 부락에서 중추가 될 만한 사람들,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은 극히 소수고….”

그렇게 전쟁전후의 이야기를 꺼려하시던 남천어르신은 비자리에 사는 김중배선생님을 만나라고 일러주셨다. 김중배선생님은 전쟁 때 보도연맹 희생자였던 아버지를 둔 분이었고, 그리고 2001년부터 소안도 전쟁전후 희생자 기초조사를 해 오신 분이었다. 남천어르신 당신이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김중배선생님을 통해 말씀해주셨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렇게 만난 김중배선생님은 차돌 같은 분이었다.

“민주주의 이상을 가지고 헌법 제 1조 대한민국 공화국도 있으니까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민주 절차에 의해서 사람을 죽여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 없이 몽매하게 세계 240~250개 국가가 있어도 절차 없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 소안도에서 6·25전쟁 전후에 돌아가신 250인의 영령들[1)]

가학리: 김수동, 김원주, 김장휴

구도리: 강윤구, 강희숙, 김대구, 김만옥, 김명옥, 김명율, 김명채, 김상규, 김석기, 김석철, 김성도, 김천옥, 김태규, <김명식, 김흥순>, 백문현, 신관삼, 최봉륜, 최봉섭, 최영득, 최원희, 한명동, <허상윤, 허성연>, 허영수, 허태선

당사리: 강창근, 김용인, 김제남, 신인선, 신정철, 이동진

동진리: 강성안, 강성암, 김옥주, 김민혁, 신동정, 이장규, 최흥제

맹선리: 강대우, 이남길, 이정욱, 이정주, <최평산, 정영임, 최안, 최안자, 최세진, 최안숙, 최선자>

미라리: 고홍민, 김병남, 김석홍, <김장도, 김수동> 김주남, 문원식, 문응빈, 문학채, 신각균, 신민희, 신보희, 신활균, 이옥남, 장원기, 정선옥

부상리: 고양문, <고차산, 고적산, 고아산>, 이구산, <이수산, 이상진> 이장동, 이정산, 이정운, 이천동, 채귀돌

북암리: 노용우

비자리: 김광동, 김남호, 김부겸, 김옥관, 김용군, 김용남, <김은주, 김은섭>, 김인권, <김장안, 김장균,김영희>, 김두봉, 김중봉, 김진열, <김종매, 김학연>,

1) < >표시는 가족단위의 희생자들이다

김형연, 박규성, 박인홍, <박정남, 이봉덕, 박인수, 박동순>, 이경오, <장경신, 장학빈>,정일규, 정하진, <정휴봉, 정휴성>, <최정채, 이정혜, 최권채, 최정란>, 최기철, 최연채, 황석후

서중리: 이상욱, 최동표, 한장율

소진리: <고래근, 박홍규, 박서규>, 이정우

월향리: <김유곤, 강순금, 김진운, 정녹임, 김진표, 김진지, 김진황, 김진본, 김길옥>, <김망덕, 김병모, 김명금, 김영모, 김영숙>, 김강곤, 김금곤, <김남곤, 김진보, 김진순, 김진관, 김윤수>, <김현수, 김명수>, 김명엽, 김명임, 김석만, 김성모, <김인주, 김은주, 김은주 처, 김인주 동생 2명>, <김제훈, 최득님>, 김주창, <김진귀, 김진산>, <김진배, 김진기>, 김진만, 김진민, 김진토, 김진학, 김충호, 염명균, 오석진, 이북심, 정덕희, <정상진, 정상진 처, 정상진 子, 정진천, 정상우>, 정천진, 주일광

이목리: 김석만, 김용운, 백서주, 백현선, 위인호

횡간리: 고채전, 고채조, 고채구, 고영업, 고성순, 백종엽, 박매월, 이후원, 이후원 子>, 권남복, <김양일, 김용태, 박성애>, <김권용, 김원유>, 김귀홍, 김대옥, 김덕홍, 김동주, 김득산, 김민주, 김민채, <김윤흠, 김영임, 김상열>, 김병율, <김복길, 김일배>, 김복홍, 김석노, 김석오, 김순배, <김양선,김채옥>, <김억조, 김억원>, 김억율, 김옥배, 김옥준, 김옥선, <김송석, 김창율>, <김용수, 김주석>, <김이엽, 김태문>, 김제영, <김준섭, 김일복>, <김철구, 김용관, 김용재>, 김청석, <김판옥, 김판길>, 김환길, 김흥복, 박일광, <박일선, 박일섭, 박일순>, 손무덕, 장남동

작은 섬 소안도가 왜 그리 희생이 컸는지 객관적으로 듣고 싶어 서울로 올라갔다. 한양대 사학과 박찬승 교수님을 만났다.

“소안도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그것은 일제시기에 항일운동이 가장 드셌던 곳이고, 사회주의운동이 드셌던 곳이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아무래도 좌파 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된 거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숫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완도 전체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서 약 천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소안도가 가장 피해가 심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이것은 다 어쩌면 냉전, 분단과 냉전,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 죄책감, 공백을 만들다

2012년이 시작되는 1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남천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작업을 일찍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다. 그런 무거운 마음때문에 1년 남짓 소안도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소안도를 가지는 못하면서도 '왜 내가 일찍 마무리를 못하였는가'를 생각했다. 남천어르신께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생각했다. 남천어르신에게 듣고 싶었던 소안의 노래들을 생각했다. 그래서 작업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르신이 그리웠다. 그것은 그분이 내게 보여줬던 따뜻함과 존중이었다. 그분이 소안도 선배어르신에게 받았던 평등을 내게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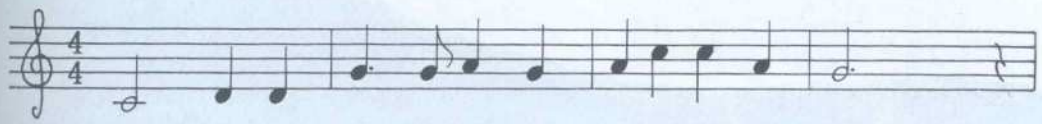
■ 소안의 노래, 그리고 소안도만의 노래 <이별가>

소안도에서는 항일운동을 한참 할 때 노래를 통해 항일의식을 드높였다고 한다. 그것도 소안사립학교의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가르쳤다고 들었다. 예를 들어 <행진가>, <독립운동가>, <옥중가>등이었다. 다른 육지에서도 불렀지만 소안에서는 노래를 부르기 힘든 시절에도 노래를 부르고 지켰다고 나승만 목포대 교수님께서 알려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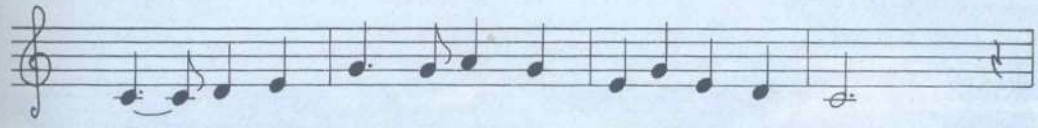
그리고 소안도는 노래와 소중한 인연이 있다. 바로 이시완선생님이다. 당시 이시완선생님은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섬에서 엄청난 항일운동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다. 기자직을 버리고 섬으로 들어와 소안학교 교사를 하며 섬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문명을 가르치고 계몽하며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런데 결국 소안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명곡을 만들어 남기고 주민들과 함께 부르며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가사에 구구절절 그런 내용이 잘 담겨있다. 다음은 이별가의 한 대목이다.

<이별가>
떠난다 떠나간다 나는 가노라
세월에 꽃동무를 남겨 두고서
소안에 뭉게뭉게 피는 꽃송아
아무리 아픈 폭우 심할지라도
님 향한 일편단심 변치 마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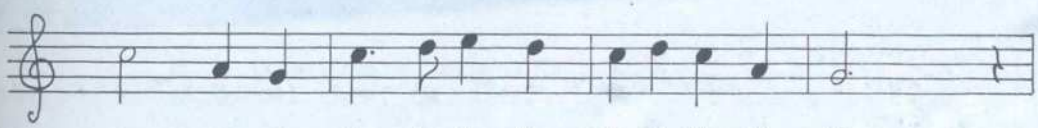
이 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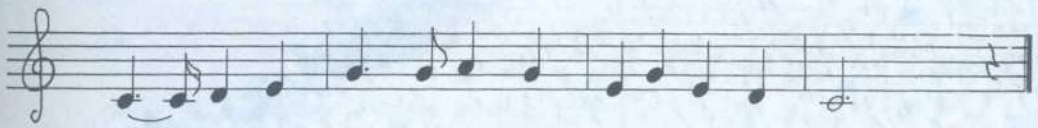
1. 떠 난 다 떠 나 간 다 나 는 가 노 라
2. 만 남 도 뜻 있 으 니 믿 음 도 큰 데
3. 한 바 다 외 배 타 고 돌 아 서 는 맘
4. 소 안 의 뭉 게 뭉 게 피 는 꽃 송 아



세 — 월 의 꽃 동 무 를 남 겨 두 고 서
마 음 속 에 맺 은 정 을 풀 기 도 전 에
지 낸 일 을 생 각 하 니 꿈 결 같 도 다
한 — 말 씀 드 리 노 니 새 겨 두 시 오



쌍 죽 에 맺 은 마 음 굳 고 깊 건 만
이 별 로 애 를 끊 는 이 웬 일 인 가
뒤 로 는 웃 고 놀 던 소 안 뜰 이 며
아 무 리 악 풍 폭 우 심 할 지 라 도



내 — 분 을 못 이 겨 서 나 는 가 노 라
눈 — 물 이 앞 을 가 려 말 못 하 겠 네
앞 으 로 는 바 라 보 니 험 악 한 파 도
임 — 향 한 일 편 단 심 변 치 마 시 오

■ 2013년, 소안도 작업과 이별할 기회가 오다

2013년 5월 29일자로 소안면희생자추모위령제를 한다는 소식을 받았다. 이는 진실화해위원회가 2009년,2010년 완도군민간인희생사건, 보도연맹사건, 목포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등에 대한 발표를 한 것이 큰 힘이 된 것이었다.

그날 위령비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공식적으로 이뤄진 현장에서 이뤄진 공식 발언은 1차 제목이었던 <소안의 망각과 기억>과 맞닿아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 다음은 위령제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발언이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친일세력을 앞세운 이승만 독재정권은 집권 초부터 이 민족을 좌·우로 갈라놓고 항일 독립운동 세력을 학살하는 등 국가폭력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목포형무소재소자사건 등으로 3년여에 걸쳐 희생당한 소안도 영령들이 250인에 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는데 64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가해자는 망각하기를 원했고, 피해자는 되살아나는 기억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끊어진 역사를 이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 2013년. 소안은 태극기의 섬이 되고

365일 태극기를 다는 태극기의 섬이 되었다.

국기는 무엇일까? 국가는 무엇일까? 이것은 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였지만, 소안도 사람들에게 국기는 무엇일까, 국가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기도 했다. 2013년 위령비 건립으로 소안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래서 편집하면서 모든 인서트는 소안도 여기저기에 흔들리고 있는 국기로 하기로 했다.

■ 2015년 봄, 다시 소안도 안개 속을 걷다

2013년 소안도희생자추모비 건립식 이후 소안도 작업을 마치려고 했는데, 여전히 소안도와 이별을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지금껏 소안도를 놓치 못한 이유이기도 했던 돌아가신 남천어르신 생각때문이었다. 그분을 생각하면 작업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작업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역사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고민과 맞닿아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 소안도 안개 속을 걸었다.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이 박대님할머니였다.

박대님할머니는 <이별가>는 물론이고 소안의 노래를 많이 기억하고 계셨다. 남천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 항일의 노래가 소안에서 더 불리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생각나 소안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찾았다. 학생들이 노래를 배우겠다고 했다. 그렇게 박대님할머니와 학생들이 만났다.

3부 작업을 마치며

■ 안갯속을 나와 섬을 바라본다, 그리고 동학

소안도 작업을 마무리 하고도 나는 다시 생각한다. 전쟁전후의 슬픈 역사가 없었다면, 과거청산이 다르게 이루어졌다면, 소안도 민중들이 불렀던 더 많은 저항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을까? 당시의 소안도에서 행해졌다던 <수동이 어머니의 노래>와 같은 연극의 말랑말랑한 속살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소안도 정신의 뿌리는 시작은 또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한다.

'일본인들이 1909년도에 소안면 당사도에 등대를 세웠는데, 대한민국에서 나온 물산을 착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준하선생 등 동학군에 참여했던 의병과 소안의 의병들이 등대를 파괴해야만 우리 물산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간수 4명을 처형하고 등대를 파괴했던 의로운 의병들의 의거였던 것이다'. 육지에서 실패한 혁명은 섬으로 들어왔고, 그것은 다시 육지의 해방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 에필로그: 소안도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지도
– 그것은 소안도의 아픔은 한반도의 아픔이기 때문이다

소안도는 나에게 우연히 왔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소안도를 작업하기 전,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나의 생각이 많이 머물렀던 에피소드들은 다음과 같다.

▷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 사촌이 빨치산활동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촌은 화순 동복 어느 은행나무 밑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아버지에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달라' 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너무 나서면 안 된다. 중간만 해라' 이런 이야기로 대신하셨다.

▷ 2013년 9월: 경희대, 마르크스의 자본론 강의를 듣던 한 대학생은 강사를 국정원에 고발을 한다. 강사가 "반자본주의 및 반미사상을 갖고 있고, 민주노동당에서 간부로 일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 2013년 8월 15일: 광주 광복절 행사에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혁명가 '체 게바라'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공연을 하였다. 이를 지켜본 광주보훈처장은 "행사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시장은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그래서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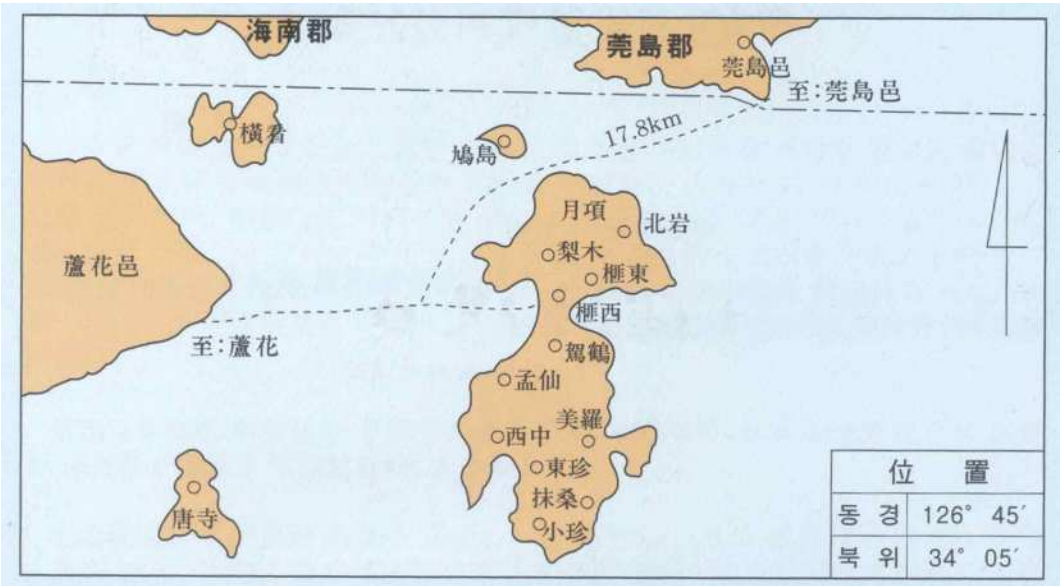
▷ 2013년 9월: <천안함 프로젝트> 감독은 촬영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소개한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인터뷰를 촬영했다고 한다. 한 여성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대답을 하였고, 감독은 속으로 '이 인터뷰를 쓰지 않겠구나'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녀가 다시 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자신의 촬영 분은 절대 쓰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한다.

나의 이런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 성공회대 김동춘교수님을 찾아갔다. 바쁘셨던 교수님은 작은 작업에 흔쾌히 시간을 내어 주셨다.

“전시적인 폭력, 우리는 약간씩은 방관자이거나 희생자, 간접희생자이거나 방관자죠. 방관자들이 적극적인 시민이나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내고 항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다 겁먹고 위축되어 가지고 자기주장을 못하죠. 그러면 그 사회가 민주화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시민 참여나 시민사회 활성화도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폭력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대를 이어 전수가 되고 모든 구성원이 폭력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권력의 입장에서는 통치하기가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아직도 나는 나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언제쯤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소안도 사람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땅이었고, 노래였고, 주체적인 삶이었다. 그들과 그들의 이야기는 망각과 기억 사이에서 살고 있거나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그리고 이것은 과거만의 일인가?”



소안도 옛 지도

3. <소안의 노래>스탭구성

구성: 김희은, 김좌현

촬영: 유명상, 김경자, 이광수, 김소연, 김선희, 서설, 김희은, 김좌현, 이순학, 이정훈

그래픽 편집: 유명상, 백종록, 이경호

편집: 김경자

나래이션 목소리: 이주연, 김시내

음악: 김신혜

춤: 이성순

합창: 소안중학교 2학년1반, 소안초등학교

합창지도: 조인호

도움주신분: 박강배, 김준근, 정병호, 나창진, 박보미, 김문희, 신동호, 김민석, 이동호, 김승미, 김영순, 문다성, 강제윤, 소안항일운동기념관, 광주독립영화제

촬영장비대여: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로드매니저: 강은선

동행친구들: 김정연, 박미영, 최민희, 사이공, 김시내, 김정연, 박보라미, 박금순, 김경숙, 문정미, 양애란, 류현정, 최영미

감사드립니다: 이은진, 김정희, 이승남, 서은현, 놀이패 신명, 소안도 주민분들, 소안중학교/초등학교학생 선생님들

4. <참고자료>

1) 해방의 땅 소안도[a2)]

이균영[b3)]

■ 감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이불을 덮지 않았던 소안사람들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군. 총면적 2,870헥타르의 면 단위로는 작은 규모의 땅이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피난민들이 이 선에 이주를 시작하여 섬 이름을 달목도라 했다. 총 가구 1,620호에 인구 6,359명. 좁은 땅과 바다가 소안사람들의 생활터전이다. 경지면적은 644.8헥타르이지만 호당 경지면적은 0.39헥타르에 불과하다. 선박의 수는 동력선 1,004척. 호당 주민소득은 84년 500여만 원에서 88년 말 현재 570여만 원이다.

광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대나무가 자주 나타나는 남쪽 길로 3시간 가까이 달리면 완도의 바다가 보인다. 완도에서 소안까지는 1시간 거리의 뱃길이다. 여름철이면 소안도·보길도·노화도를 돌아오는 배는 해수욕장이나 고산 윤선도의 유적지인 보길도를 찾는 피서객들로 북적거린다. 그러나 피서객들은 소안에서는 내리지 않는다. 소안은 그들을 맞을 해수욕장이나 소안 가는 길에 건너다보이는, 명사십리 해변을 가진 신지도와 같은 자랑할 만한 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길도나 청해진에 비길 만한 유적도 없다.

그러나 일흔이 넘은 소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금도 1910~20년대 만주에서 불렀던 「독립군가」 「옥중가」 「여권신장가」 「애국가」(현재의 애국가와는 가사와 곡이 다르다) 따위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놀랍게도 「메이데이가」를 거침없이 부를 수 있다.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감옥의 그 사람을 생각하며 겨울에도 이불을 덮지 않고 잠자는 것이 소안사람들이었다. 1920년대 약 4천명의 주민[1)]들 중 800명

---

a2) (주)「사회와 사상」89. 9월호에서 전재.
b3) 동덕여대 교수·한국사··소설가
1) 『동아일보』(1927. 5. 17)

의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불령선인(不逞鮮人)혐의를 받았던[2] 곳, 1920년대 초부터 일본과 만주 등지에까지 항일조직을 구축하였던 곳, 그리하여 지상을 통하여 혹은 소문을 타고 20년대 암흑의 조국을 비추는 한빛줄기였던 곳-제국주의의 침략하에서도 그 소안은 일찍이 해방의 땅이었다.

■ 이 사람들은 옛일에 왜 이토록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맨 처음 소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거의 10년 전이었다. 20년대의 신문들에서 관심분야의 기사를 뽑아 논문을 쓰기 위한 카드를 작성하고 있던 나는 소안에 대한 기사가 지나칠(?)만큼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조선일보』에서는 소안도에 대한 사설을 2회에 걸쳐 게재하고 있었다. 나는 언제 연구를 할 수 있을지 또는 과연 집중적으로 연구과제가 될 만한 일인지 알 수 없는대로 소안에 대한 카드를 작성하였다. 일단 관심을 가기자 사상운동관계나 노동·농민운동관계의 관헌자료에도 소안의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서울청년회와 조선민흥회, 신간회 등에서 중심적 활동을 한 송내호(宋乃浩)와 재일조선 노동총동맹위원장이었던 정남국(鄭南局)이 소안인이라는 사실도 이렇게 알게 되었다.

그후 수년이 지난 1988년 여름, 나는 일제하의 농민운동과 신간회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단체의 지방조직과 그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라남북도를 여행하였다. 40일간에 걸친 그 여행의 출발지가 완도였다. 나의 조사는 일단 신간회지회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그 대상이 되는 완도읍과 신지도를 답사해야 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일제하의 일이라면 소안에 가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시치미를 떼로 "소안이 어떤 곳인데요"하고 물었지만 모두 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한 곳이었다요"하는 것이었다. 소안으로 가기 위해 나는 아침 일찍 부두에 나갔지만 뱃시간은 멀었고 일정은 이미 짜여져 있었으므로 부득이 소안행은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끊어져버릴 듯했던 소안에 대한 관심은 김진택(金鎭澤) 선생으로 하여 오히려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지난해 가을 그는 불쑥 학교 연구실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소안사람이며, 내가 소안에 관한 여러 자료를 가

2) 『조선일보』(1928. 10. 16)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나는 내가 모르고 있던 소안인들의 항일투쟁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학문적인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야기 마지막에 선생은 자신이 올해 예순일곱이며, 소안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남은 생애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그 일을 내가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고는 싶지만 다른 연구과제들로 바쁘기 때문에 기약을 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한 편의 역사논문을 쓰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임으로써 나는 선생의 부탁으로부터 슬쩍 비켜설 수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그 후부터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나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선생은 올 때마다 새로운 자료와 정보를 가져왔다. 나는 차츰 그 정성에 감동되었고 마침내 3월학기가 시작되면서 올 8·15 이전까지는 논문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하고 말았다. 일단 약속을 하자 나는 먼저 소안노인회로부터 감사와 격려의 말이 담긴 편지를 받았고 서울면 향우회 소속의 많은 분들로부터 잘 써달라는 격려 전화를 받았다. 한 번밖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술자리에도 여러번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소안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고 동시에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옛일에 이토록 사로잡혀 있는가하는 의문에 붙들렸다. 그 의문은 이 글 속에서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난 5월 12일 소안에 갔다. 단순한 답사여행으로 생각했던 나는 소안에 닿자마자 의외의 환영을 받았다. 나의 면담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뒤에 보게 되겠지만, 제주도에 거주하는 이월송(李月松) 선생을 모셔두고 있었으며 해남 등지에 사는 분들도 미리 와 계셨다. 노인회의 간부들, 농협의 조합장, 면장, 소안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까지 나를 찾아와 격려를 하고 혹은 점심이나 저녁을 사고 피로회복용 음료수를 건네시는 것이었다.

5월13일 토요일. 하늘은 청정한데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오후부터 배가 끊겼다.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텔레비전의 일기해설 시간을 열심히 보았지만 이곳의 태풍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나는 내심 혼자 분개했지만 그곳 사람들에겐 일상이었다. 밤에 서울로 전화했다. “태풍에 갇혀 있다. 내일 결강은 보충수업으로 대신하겠다.”

5월 15일. 아침바다는 씻은 듯이 가라앉아 있었다. 아침 7시 부두에 서

있는데 우체국장과 농협상무님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왔다. 내가 떠나려고 하자 내 호주머니에 봉투를 내들이밀었다. 겉봉엔 '촌지'라고 씌어 있었다. 바다는 갰지만 나는 그들의 폭풍과 그들의 인정을 그 대로 안고 돌아왔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소안답사였다.

■ 3.15운동과 배달 청년회 결성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완도에서의 민족운동은 3.1운동이후에 표면화되었다.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 수천 매와 격문150개가 광주에 전달된 것은 1919년 3월 6일이었다[3]. 완도의 만세운동은 완도읍에서 그 열흘 후인 3월 15일에 일어났다.[4]

3.15운동 소식이 전해진 후 완도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해온 사람들은 소안면의 송내호(宋乃浩), 정남국(鄭南局), 최형천(崔亨天), 신준희(申晙熙), 김경천(金景天), 강정태(姜正泰), 백태윤(白泰胤) 등과 완도읍의 나봉균(羅鳳均), 최사열(崔仕烈) 등이었다. 그들은 준비과정에서 천도교·기독교계의 인물들과 제휴하였는데 3월 15일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은 천도교측이었다.[5]

이날 수백 명의 천도교인이 모여 송내호 등과 만세시위를 일으켰던 것이다.

따라서 광주로부터 언제 어떠한 경로로 완도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달경로가 천도교의 지방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광주의 만세운동에 송기호가 들어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송기호는 당시 20세로 광주농업학교에 재학중이었으며 피검 후 1년의 징역형을 받았다.[6] 뒤에서 보겠지만 그는 그 후 형인 송내호와 함께 많은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송기호가 광주와 완도의 만세운동을 잇는 구실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다.

---

3) 「광주독립만세사건 재판기록」 『광주일보』(1984. 3. 2)에 번역 게재.
4)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3.1운동사』 하(독립유공자 사업기금 운용위원회, 고려서림, 1985), p622. 그러나 완도군지 편찬위원회, 『완도군지』(1977), p253에 의하면 그 날짜는 3월 16일로 되어 있다.
5)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3.1운동사』 하(독립유공자 사업기금 운용위원회, 고려서림, 1985), p622~623.
6) 「광주독립만세사건 재판기록」

3.1운동 이후인 1920년 4월 송내호·정남국 주도 아래 소안에서는 100여 명의 회원들로 배달청년회(倍達靑年會)가 결성되었다.[7] 회장은 송내호, 부회장은 정남국으로 이 무렵 이미 전국에는 수백 개의 합법적 청년단체가 결성되어 있었다.[8] 이 자연발적인 청년단체들은 1924년 4월 조선청년총동맹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조직적인 통일과 분열을 거듭하였으며 그것은 조선의 청년운동이 계급적·민족적 성격을 뚜렷이 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조선청년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단체가 서울청년회였으며 이후 표면적 운동이 가능해졌던 1920년 말까지 서울청년회는 조선의 사상·노동·농민운동 등에서 화요회와 더불어 2대 지주중의 한 단체로 존재했다. 소안면의 항일 전사들은 일찍이 그 서울청년회와 조직적으로 연계되었다. 사료에 확인되는 첫 접촉은 1923년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청년회 주도로 서울에서 열린 전조선청년당대회에서였다. 이대회에는 전국 94개 단체 150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이때 배달청년회에서는 강사원(姜仕遠), 신동희(申東熙), 신우승(新禹昇)이 참석하였다.[9]

나는 첫 번째 소안답사를 하였던 지난 5월 13일 강사원의 손자로 현재 소안농협 상무로 있는 강정일(姜正一)을 만났다. 그는 그의 집 벽장 안에 대대로 간직하여 왔다는 보자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보자기에는 아홉 장의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그 사진들은 대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정도의 대형이었다. 사진들 본 순간 나는 들뜨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는 1923년 3월 24일의 날짜가 박혀 있는 전조선청년당대회 대표자 출석 기념 사진, 1924년 전조선노농총동맹창립기념사진, 1926년에 찍은 배달청년회와 소안노농대성(所安勞農大成會) 합동기념사진 등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강정일은 그 사진 속에서 그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가리켰다. 나는 사진들을 제주도에서 온 이월송 선생에게 가져가 사진 속의 인물들을 가려내줄 것을 부탁했다. 이월송은 스스로 100명이 넘는 사진 속의 인물들 중 3분의 1정도는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지만 81세의 그의 시력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지 않았다. 전조선청년당대회 사진 속의 인물들은 약 130명이었다. 종래 이 대회 참가단체와 참가대표자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자료가 있었지만[10] 사진에 의해 94개 단체, 150명으로 밝혀진 셈이다.

---

7) 『조선일보』(1928. 10. 16)
8) 1920년 12월 1일 현재 한국의 청년단체는 600개였다. 이석태 편, 『사회과학대사전』(문우인서관, 1949), p615.
9) 배성룡, 「조선사회운동소사」, 『조선사상통신』 제 88호(1929. 1. 23), p131.

완도에는 소안의 배달청년회 외에도 배달청년회보다 한 달 뒤 결성된 완도 청년회[11]가 있었다. 또한 1923년 4월 20일에는 완도청년 연합회[12]와 완도무산청년회[13]가 동시에 조직되었다. 전자는 소안의 신만희(申晩熙)가 회장을 맡았으며 후자의 대표적 인물은 김병규(金柄奎)였다. 김병규와 나봉균, 김장렬 등은 이후의 노동·청년·신간회운동에서 나타나듯 소안인들과 동지적 입장에 있었고 송내호와 정남국 등의 지도노선을 따르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완도지방에서 생겨난 여러 청년단체들은 조직적 분열이 아니라 배달청년회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결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주도인물들이 동일한 완도청년연합회와 완도무산청년회가 왜 같은 날 두 개의 조직으로 결성되었을까 하는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완도의 여러 청년단체들은 민족운동 단체들이 통일전선을 형성하려는 기운이 고조되는 1927년 경에는 완도청년동맹으로 조직적 통일을 이루어나갔으리라 추측된다. 그 한가지 좋은 예가, 신간회완도지회가 결성되는 1927년 8월 28일[14] 완도청년동맹은 배달청년회를 해체하여 완도청년동맹 소안지부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는 사실이다.[15] 이 결의에 따라 배달청년회원들이 해체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이른바 배달청년회사건인데 이는 위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성회사건

한편, 서울청년회와 조직적 연계를 가진 강정태, 신준희, 최형천, 송내호, 정남국, 박흥곤(朴興坤)등 배달청년호 중심인물들은 소안의 노동조직의 결성을 시도했다. 이 노력은 1924년 3월부타 시작되었는데 배달청년회의 중심인물들이 연고가 있는 마을에 리(里)를 중심으로 노동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연합하는 조직방식이 채택되었다. 그러한 결과 창립일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10) 경성지법검사국, 『朝鮮靑年黨大會二련 』(정보철, 1923), pp.107~23에는 참가단체 74개, 대표 107명으로 되어 있다. 이는 김준엽, 김창순 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0), p.115에서 재인용.

11) 1920년 5월 19일 창립됨, 회장 리봉균, 총무 김장열, 『동아일보』(1920. 6. 7).

12) 『동아일보』(1926. 4. 26).

13) 『동아일보』(1926년. 4. 28). 창립일자인 1923년 4월 20일은 1926년 4월 20일이 제3회 정기총회일이라는기록에서 유추한 것이다. 잘못된 일자일 수도 있다.

14) 『조선일보』(1927. 9.5): 『동아일보』(1927. 9. 6).

15) 정부기록보관소 소장, 『昭和4年硏究所 第207號一第1審判抉控示/犯罪事實』,(대구지방법원), p.22.

적어도 같은 해 9월 이전까지 회원 약700여 명의 소안노동대성회(혹은 소안노동연합대성회)가 결성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배달청년회 회원들은 노동대성회에도 가입하였다. 배달청년회 및 대성회는 조선청년동맹, 조선노농총동맹 및 광주에 있는 전남청년연합회[16]에 가입하고 그 강령과 결의사항을 활동방향으로 하였다. 이때 이미 일제당국은, 창립당시 지·덕·체의 단련을 목표로 결성된 배달청년회나 또는 대성회가 사회주의단체로 기울어가고 있으며, 강정태, 신준희, 최형천, 송내호, 정남국 등은 이미 사회주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17] 경찰의 그러한 판단은 근거 있는 것이었다. 배달청년회와 대성회는 조직이 확대되고 그 기반이 안정되자 회원들 중에서 몇 되지 않는, 면장을 비롯한 관료들을 추방하였으며 실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연장자들에게 탈퇴를 권유하였다. 소안에 거주하는 경찰들에게는 온 면민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불언동맹'을 실시하기도 하고[18]강연회나 독서회 등을 지도하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활동에 여성들을 참여시키기 시작했다.[19] 경찰은 당연히 이 작은 섬에서 지나친 열기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조처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계기는 대성회의 제2회 총회가 열렸던 1924년 9월 15일에 마련되었다. 이 날의 회의에서 사회를 보고 있던 정남국은 감시를 위하여 일경 추상민(秋相玟)이 입장하자 "저 일본놈 순사를 쫓아내라"고 소리쳤다. 회의장은 곧 소요와 흥분으로 휩싸였고 결국 추상민은 밖으로 쫓겨났다. 이 사건을 빌미로 경찰은 대성회 간부 12명을 구금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대성회사건 혹은 동아일보의 표면을 빌자면 "세상의 이목을 놀래이던" 오나도사건이다. 이들의 죄명은 다음 네 가지였다. ①집무방해죄-추상민 순사를 퇴장시킨 일 ②협박죄-대성회를 반대하고 소작인을 기망한 지주 이강채(李康彩)에 대해 회원으로 하여금 그와 절교케 하고 수화(水火)마저 불통케 한 일. ③ 예배소를 파한 죄-미신을 타파한다는 이유로 상중에 있는 회원이 상방(喪房)을 철폐한 일. ④ 보안법위반죄-현 제도를 부안하는 죄.[20]

예심에 회부된 12명은 다음과 같다. 정남국(29세, 미라리). 최형천(32세,

16) 1924년 3월 2일 창립됨. 1926년 2회 정기총회 당시의 자료에는 소안의 신광회가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아일보』(1926. 1. 28, 1929. 3.1).

17) 『昭 和4年刑控公 第』2078號一第1審判決 示1犯罪事實, pp.19~20.

18) 25년경 소안 거주 경찰은 4명으로 2명은 조선인, 2명은 일본인이었다 이월송 면담. 1989년 5월 13일. 소안.

19) 親睦會가 있었다. 『동아일보』(1926. 2. 27)

20) 『조선일보』(1924. 19. 28)

맹선리, 농업), 신광희(21세, 미라리, 농업), 신만희(25세, 미라리, 농업), 백형기(30세, 진산리, 농업), 이갑준(24세, 미라리), 신준희(37세, 미라리, 농업), 송내호(31세, 이월리, 농업), 신동희(24세, 사립학교 교원), 박흥곤(22세, 청산면 부흥리, 무직), 강정태(30세, 진산리, 농업), 박기숙(30세, 진산리, 농업).[21]

예심종결 결과 1925년 2월 5일 강정태·신만희·박흥곤은 면소되었고 나머지는 공판에 부쳐졌다.[22] 공판은 4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 이날의 방청석은 광주, 승주, 보성, 순천, 구례 등지의 농민운동자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즉 1924년 4월 조선노농총동맹과 조선청년동맹이 결성된 이후 이 시기에 이르면 각 지방의 사회단체들은 강한 조직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5월 20일 있었던 공판의 내용은 징역1년-송내호, 징역6월-최형천·신준희·정남국이었고 나머지의 신광희·신동희·백형기·이갑준·박기숙 등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음으로써 바로 귀향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귀향길인 목포에서 그 지방 유지들의 환대를 받았다.[23]

이것이 소안인들이 감옥을 집드나들듯하기 시작하는 처음이었다. 이들이 구금된 이후 투옥되지는 않았지만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박사욱(朴仕彧), 최병우(崔炳佑), 최익재, 이평존(李平存), 강경도 같은 이들은 손가락을 베어 투쟁의지를 다짐하였다. 이들에겐 그들이 '먼저 감옥에 간 것에 불과'했다. 또한 감옥간 이들의 마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겨울에도 철창의 이웃을 생각하며 이불을 덮고 자지 않았다. 그것은 이후 소안사람들의 도덕적 불문율이 되었다.

■ 완도무산청년회, 계급적 자각으로 해방운동의 역군을 양성하기로 결의

대성회사건으로 조직적 허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소안인들의 민족운동은 이전과 변함없이 전개되었다. 그들은 1925년 2월, 완도 무산청년회의 임시대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

21) 『동아일보』(1925. 2. 9).
22) 『조선일보』(1925. 2. 9).
23) 『동아일보』(1925. 5. 26).

-계급적 자각으로 해방운동의 제일선에 설 역군을 양성키로 한다

-해방에 필요한 의식을 갖기 위하여 강연회, 독서회, 토론회를 실시하기로 함

-타협적 민족운동을 박멸하자[24]

이러한 결의사항은, 공개적인 사료에 한정시켜 볼 때 그 이전보다 직접적이고 강경한 것이었다. 이것이 재판의 진행 중에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다. 그러던 중 1925년 10월 1일 구금된 지 1년 만에 정남국·최형천·신준희가 만기 출옥함으로써 소안의 민족운동 세력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탄압은 계속되었지만 대성회 사건은 무엇보다 소안면민들 사이의 조직적 단결력을 굳게 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배달청년회와 대성회의 활동영역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가입회원들도 중복되어 있었으므로 두 단체의 활동은 각각 고유한 영역에 집중될 수가 없었다. 배달청년회에서 노농운동에 대한 사항을 결의한다든지 다른 지역의 소작쟁의에 대한 동정금을 모으고 격려전문을 보낸다든지, 메이데이 기념식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러한 예였다.[25]

대성회의 활동은 비교적 노농단체로서 그 영역을 지키고 있었다. 대 지주 대책은 그 중요한 활동이었다. 소작권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내용을 조사하여 악질지주를 징계하는 것[26]은 이 당시 전국 농민운동의 일반적 활동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안 노농대성회의 활동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을 요하고 있다. 첫째, 다른 지역에 비하여 훨씬 이른 시기인 1925년 12월에 이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분리를 논의하고 있다.[27] 1924년 노동운동 단일전선의 객관적 요청에 따라 결성된 조선노농총동맹은 그 강령에서 노농계급의 해방과 신사회의 실현을 표방함으로써 일제당국으로부터 갖가지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농민운동은 꾸준히 성장하였고[28] 이에 따라 조선노농총동맹은 1925년 11월 19일에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간담회에서 조선노농총동맹을 노동·농민의 양 총동맹으로 분립시킬 것을 가결했다.[29] 그러나 정작 그 분립이 실행된 것은 1927년 9월 7일이었다. 바로 이날 조선

24) 『조선일보』(1925. 3. 8).
25) 『동아일보』(1925. 10. 30, 1925, 11. 21, 1926.1. 26. 4. 25).
26) 『동아일보』(1925. 10. 30). 이때의 주요 활동인물은 신만회, 정남국, 박화국, 최형천, 강정태, 이재셥, 위경화 등이다.
27) 『동아일보』(1026. 1. 6, 1926. 4. 28).
28)
29) 이석태, 『사회과학대사전』(문우인서관, 1949), p602.

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의 중앙기관이 선출되었다. 후자의 23명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완도 대표인 소안의 신준희가 들어 있다.[30]

둘째, 소안노농대성회는 노농운동단체를 표방하였지만 농촌에서, 더욱이 섬에서의 노농운농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활동을 펼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후에 대성회의 간부인 정남국을 비롯한 많은 소안인들이 일본에서의 조선인 노동운동에 진출하였고 정남국이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노농대성회를 통한 조직적 훈련과 투쟁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마르크스주의로 무장한 '살자회'의 결성과 활동

우리는 지금껏 소안의 청년노농운동을 살펴봤지만 1926년 8월 13일에는 마침내 사상단체인 '살자회'가 조직되었다. [31]사상단체란 새로운 세계적 사상조류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단체인데 이때의 사상조류란 대부분의 경우 러시아혁명세서 실천되었던 마르크스주의를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상단체가 조직되었다는 것은 소안에서도 사회주의가 조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말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정남국의 사회로 열린 살자회 창립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와 강령이 있었다.

"진실한 생활을 함께 깨닫고 이를 최단기에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을 얻어 그것을 대중의 마음에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살자회를 결성한다."

-우리는 상호부조와 정의에 희생할 정신을 갖춘다.

-우리는 신사회건설의 속성을 도모함.[32]

창립총회 후에 열린 임시대회에서는 여러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중에서 농민·노동·청년·여성·형평운동에 관한 것은 전국의 어느 사상단체의 모임에서도 등장하는 문제였지만 거기에 덧붙여 이날 대회에서는 '운동선통일에 대한 건'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결과 '전 조선 사회운동분열현상에 대하여 통일운동 최고기관을 위하여 당파적 소이익을 희생하고 통일할 것은 무조건으로 고조하되 만일 통일에 성의가 없는 자는 운동선에서

30) 『동아일보』(1927. 9. 9).
31) 『동아일보』(1926. 6. 19).
32) 『昭和4年刑控公 第207號-第一審判決 示/犯罪事實』 pp.26~27.

구축하자'는 결의가 있었다. 이때의 분열현상이란 사회주의와 이른바 민족주의간의 분열과 여러 사회주의 단체들 사이의 분열을 가리키는 것이었다.[33] 살자회에서 결의되고 있는 이러한 전선의 통일에 대한 요구는 광범위한 민족적 요구로 형성되어 나갔고 그것이 마침내 1927년 2월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가 창립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살자회의 주요한 조직기반은 배달청년회였다. 그러나 살자회 회원은 단지 25명[34]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살자회는 사상적 결집이 더욱 공고한 인물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배달청년회에서는 적어도 26년부터는 그 회관에 사회주의 관계서적을 비치하여 회원들에게 열람토록 했으며 강연회와 독서회 등을 통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의식화 작업을 전개해왔다. 송내호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그러한 작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살자회를 결성했을 것이다. 살자회의 주요 인물들은 최평산(崔平山), 김남두(金南斗), 주채도(朱采道), 김통안(金通安), 김병규(金柄奎), 송기호, 송내호, 강정태, 신중희, 신광희, 최형천, 박흥곤, 정남국 등이었다. 이들 10명은 살자회의 창립과 동시에 심사쉬원 5명을 선출, 회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15명을 더 선발 25명의 회원을 확보했던 것이다. 집행위원은 최형천·최평산·강정태·김병규·신준희·송내호였다. 그들의 운동방향은 다음의 결의에 더 잘 나타나 있다.

"농민운동은 소작농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물론 자작농을 포함하는 농민대중운동으로 하며, 노동운동은 비타협적 정신으로 경제적 개방을 주로 하는 동시에 정치적 단련을 굳게 할 것, 청년운동은 무산청년운동의 지도적 정신 아래 민족주의 청년운동자들과 공동협력을 취할 것, 여성운동은....."[35]

이 결의를 통하여 우리는 살자회가 노동·농민·청년운동 등에서 이른바 민족진영과 협력관계를 지녀야 한다는 것, 이 협력관계란 소작농 중심의 농민운동을 자작농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이른바 민족주의 진영이 협동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1925년부터 양측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여러 굴절 과정은 있었지만 그러한 분위기는 신간회가 결성되는 1927년 2월까지 일반적인 것이었다. 사회주의진영의 입장에서는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이때의 코민테른(국제공산당) 대한정책역시 전선의 통일에 주요한 목표가 두어져 있었다. 소안

33) 이분열의 실상에 대해서는 앞의『한국공산주의운동사』2가 크게 참고가 된다.
34) 『昭和4年刑控公 第207號-第一審判決 示/犯罪事實 』p25.
35) 같은 책, pp.23~30.

에서도 역시 민족운동의 전선통일이라는 이러한 요구가 일관되게 실천되고 있었던 것이다.

■ 당시의 사회·공산주의 운동은 독립운동이었다.

1989년 8월 4일 나는 2차 소안답사에 나섰다. 원고 마감기일이 눈앞에 있었지만 이것저것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현재 목포에 거주하는 김진택 선생이나 제주도에 있는 이월송 선생에게 수차 전화로 묻고 확인하고 하였지만 아직도 직접 가보아야 해결될 것들이 많았다. 사료만으로 쓰는 글은 그 대상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면, 가령 책상 위에서 열심히 쓰다 눈을 들면 금새 쓰던 대상을 잊어버리는 따위의 글은 의무러서일 뿐 아의 열중과 투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소안행을 굳이 강행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먼저,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사료를 찾아 접촉할수록 소안의 만족운동이란 내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당시의 사회·공산주의 운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서울에 있는 몇 소안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사실대로 밝히면 오히려 나의 글에 의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다. 어떤 분은 모르겠다고 했고 어떤 분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쓰면 될 것이라는 약간 모호한 대답을 해주었다. 물론 나대로 쓰면 그만이지만 나는 이미 소안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피해가 있다면 나의 작업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소안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에 묶여 있었다. 간혹 이제 밝힐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는 대답도 있었다. 이렇게 대답은 달랐지만 그러한 문제로 내가 좁촉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소안의 민족운동이 흔히 아이들의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독립운동'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소안에는 일찍부터 사회주의에 관계되는 것은 그것이 격문이 적힌 한 장의 종이쪽지라 하더라도 간직할 수 없었다. 강정일은 앞서 말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아버지로부터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말씀을 들었지요"하고 말했다. 가택수색이 자주 있었다. 그것은 8.15이래 6.25에 걸치는 기간 더욱 심했다. 그래서 나는 더욱 다시 소안에 내려가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를 느꼈다.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있는 대로 써야 할 것이 아니냐는 데로 모아졌다. 김용리(金容利) 현 소안면장 역시 그랬다.

“60년대 초 송내호 선생의 기념사업회가 열렸을 때 공무원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송내호는 1963년 3월 1일 이미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추서되었고 1968년 12월 29일 완도읍 공회당에서 500여 군민이 서거 40주년 추도회를 열었다. 김면장은 이 추도회에 공무원이 갈 수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었다. 김진택 선생은 “사실대로 써도 괜찮다”고 주장했다. 사실은 사실대로라는 원칙에서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공산주의 운동이 다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도 알고”있기 때문이며 또한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소안에서 사상운동을 했던 사람도 87년에 이미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87년까지 포상된 인물은 강정태, 김남두, 김통안, 송기호, 송내호, 신준희, 이홍쇄, 정석규, 최형천 등 9명이고 1989년 5월 31일 재신청기간에 20여 명을 더 신청해 두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그 20여 명은 기록에 나오는 사람일 뿐이고 기록에 없으면 그 이상의 활동을 했더라도 포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소안사람들은 기록만 있다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더 포상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다음으로 내가 소안에 가서 미리 밝히고자 했던 것은 지금껏 구전되어오는 소안사람들의 민족운동사실에 대해 내가 일일이 사료를 제시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럴 경우 사료에 없는, 구전되어온 일들은 오히려 근거없는 이야기로 되어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우려였다.

■ 새로 밝혀진 두 개의 할 일 비밀단체

지금까지 보아온 배달청년회, 소안노동대성회, 살자회 외에 소안사람들은 두 개의 비밀 항일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수의위친계(守義爲親契)와 일심단(一心團)이 그것이다. 이 두 개의 조직은 완전히 이월송 선생의 진술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다. 먼저 이월송 선생(이하 모든 존칭은 생략함)에 대해 소개가 필요하겠다.

소안태생으로 1909년생. 12세에 소안에 있는 사립 중화학원(中和學院)을 졸업하고 중화학원에서는 거의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어를 배우기 위하여 송정리에 있는 송정중학원에 진학, 일본어를 습득한 뒤 서울 중동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는 학생신분으로 조선청년총동맹에 참여하여 소년학생부 상임위원이 되었다. 청총에 소년학생부가 있었다는 사실은 종래 알려진 바가 없다. 그

가 청총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송내호, 강정태 등이 서울청년회와 연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월송은 청총 위원장이었던 박형병(朴衡秉)을 비롯 많은 청총관계 인물들의 모습이나 습관 신상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가 청청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26년 중동 졸업과 함께 귀향, 동아일보 주재기자를 지내며 일심단에 관여했다. 1928년 4월 도일. 주로 오사카에 거주하며 노동야학과 조선인 항구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오사카의 상애회(相愛會)와의 투쟁 역시 당시의 주요활동이었다. 1929년부터 수시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수차례 고문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없다. 나는 그와의 면담을 녹음 테이프에 담아 보관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생생한 고문 현장에 대한 진술과 고문을 당한 사실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 35년 북경으로 가 임정에 참여함, 일본에서의 활동 사실은 기록에서 찾을 수 없지만 임정 참여 사실은 광복회 회장으로 있는 박영준에 의해서 확인된다.

수의위친계는 1914년 송내호에 의해 조직되었다. 자연발생적인 소안 사람들의 민족의식을 처음으로 조직화하고 그것을 중앙의 전국적 조직들과 연결시켜 소안 사람들이 갖가지 민족해방운동에 나서게 하는 데는 송내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지금도 완도 사람들의 송내호에 대한 존경은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1914년은 열아홉 살의 송내호(1895년, 소안면 비자리 출생)가 중앙학교를 제6회로 졸업하던 해였다. 졸업 후 귀향한 송내호는 소안 사립 중화학원에서 교편을 잡으며 비밀 수의위친계 회원을 모집했다.

중화학원은 1913년 김사홍(金仕홍)이 세웠다. 김사홍은 스스로 초대 교장이 되었고 최성태(崔聖台)·김경천(金景天)이 2·3대 교장을 지냈다. 36)사립학교를 세운 데에는 물론 설립자의 민족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겠지만 송내호와 같은 인물들이 교사로 부임함에 따라 중화학원은 학생들에게 직접 그러한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요람지가 될 수 있었다. 이월송.

“그 때문에 우리들은 소학교 때부터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증오감이 대단했어요. 송내호·김정태와 같은 선생님들 외에도 할빈에서 초빙되어 오신 빈광국과 같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만주지역에서 불리던 노래

36) 중화(中和)는 중용(中庸)에 통한다. “성정(性情)을 가지고 말하면 중화라고 하고 덕행(德行)을 가지고 말하면 중용이라 한다”고 하였다. 평균이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차주환 역, 『중용』(을유문화사), p422.중화학원이라는 명칭은 그러한 의미에서 붙여졌다 한다.

들을 모두 부를 수 있었지요.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옥중가, 시베리아 벌판의 독립군들이 불렀던 독립가와 같은 노래는 감동적인 것이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나올 때면 그 가사를 적은 쪽지를 바지가랑이 접는 곳에다 숨겨 다니곤 했는데 그게 발각이 되어 나는 초등학교 4학년때 벌써 주재소 신세를 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내가 중동학교에 다닐 때 서울 사람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놀랍게도 그 노래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박형병이나 이영, 정백과 같은 사람들까지도 말이지.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기도 했어. 우리는 또 송내호 선생으로부터 웅변과 만국회의지도법과 같은 것도 배웠으므로 지금도 회의진행에는 자신이 있어."

■ 송내호가 조직한 수의위친계의 방대한 조직

다시 수의위친계와 송내호로 돌아가기로 하겠다. 송내호는 먼저 완도 소안에서 뜻있는 사람들을 모은 다음 완도읍과 완도의 각 면까지 조직을 확대하였다. 그런 다음 이를 전라남북도의 여러 지역에뿐만 아니라 경상남북도의 지역들에까지 확대시켰다. 이월송이 기억하고 있는 각 지역의 수의위친계원은 다음과 같다.

완도읍-나봉균, 김봉규

신지면-임재갑

묘도-장항준

고금도-이흥쇄

금일면-서중현

완도 소안면-송내호, 송기호, 강정태, 최병우, 정남국, 신길조, 김응섭, 김득운, 이남두, 박사욱, 신준희, 최형천, 이갑준, 백형섭, 고오길, 김양숙, 최익재, 최평산

광주-강석봉, 한길상, 전도

담양-정병용

구례-김정상, 선태섭

태인-김종섭

고창-김정환

영광-김은환, 박정순

무안-장병준, 송기화, 김경섭

영남-조극환
나주-이항발
장성-김시중, 김인수
이리-박○
목포-조문환, 설준석, 김철진
경남동래-한원석
경북상주-한신오, 이종섭, 신영철

■ 수의위친계가 펼친 광범한 독립운동

그럼 수의위친계의 활동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서 이월송이 나에게 들려준 회고와 1977년에 발행된 완도군지에 회고한 내용[37]을 종합해서 살펴 나가겠다. 먼저 수의위친계에서는 황포군관학교에 2명의 계원을 파견하였다.(1명은 소안 출신이며 1명은 경상도 출신이었다고 하나 이월송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수의위친계가 적어도 1924년 5월 황포군관학교가 설립된 당시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였음을 할 수 있다. 수의위친계에서는 다시 북경에 동래의 한원석과 완도읍의 장진우, 강우열, 약산면의 정윤섭, 정권익, 노화도의 강세원, 천기정, 소안의 신우승을 파견하였다. 간도의 용정에는 소안의 정남국, 박화국, 이형두, 신디도의 임재갑, 노화도의 권유섭, 완도의 이형춘이 파견되었다. 이들이 모두 수의위친계에 가담하고 있었는지 하는 문제, 이들의 파견 목적과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었는지, 이들이 북경이나 용정에 파견된 후 어떠한 조직과 연계되어 되어 있었는지 또한 그 연계는 누구를 통하여 사전에 형성되어 있었는지, 또 이들을 파견하는데 수의위친계는 어떠한 물질적 보조를 했으며 그러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었는지-이 모든 문제들은 전혀 밝힐 수 없다. 북경의 사회단체나 간도 용정의 항일 조직들을 대상 살펴보았지만 이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월송과 소안 노인회의 여러 사람들에 의하면 이들이 간도나 북경에 갔다는 것은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파견 대상 인물을 선정할 때 자비로 거기에 파견될 수 있을 만큼 가세가 튼튼한 것이 한 조건이었으며 따라서 비용은 파견 당사자 자비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37) 완도군지 편찬위원회, 『완도군지』(1977), pp.254~57.

나는 이 전해져오는 사실들을 어떻게 하든지 증명해내고 싶었다. 수의위 친계의 조직 명단에서처럼 이 진술들도 그대로 들어맞을 것이라는 예감에 나는 사로잡혔다.

먼저 황포군관학교 졸업생 명부를 조사하여 그들의 성명, 혹은 가명을 썼을 경우를 예상하여 고향이 완도나 경상도 지역인 인물들을 확인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자료에서는 그 졸업생 중 조선인은 19명밖에 확인되지 않았다.[38] 나는 더욱 정밀한 자료가 있다는 말을 들은 터였으므로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일본 경도귤여자대학(京都橘女子大學) 미스노 가즈오 교수에게 자료를 부탁했다. 급한 자료입니다.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허풍을 떤 덕분이었던지 미스노 교수로부터 빠른 연락이 있었다. 그가 보내온 여러 가지의 자료에는 조선인 입교자가 41명으로 나와 있었지만[39] 고향이 전라남도인 입교자는 없었다.

다음으로 나는 소안과 해와 항일운동의 지도자들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검증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월송이 송내호보다 양기탁(梁起鐸)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것이 떠올랐다.

“내가 8-9세였을 때였어. 양기탁 선생이 무슨 일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소안의 비자리에 와서 귀양생활을 한 일이 었었습니다. 그때 양기탁과 가장 가까이 지낸 분이 송내호 선생의 아버지인 송윤삼(宋胤三)씨였어요.”

내가 아는 한 1910년대 양기탁 선생이 귀양을 산 일이 없는 것 같았고 더욱이 1910년대에 귀양이라는 형벌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에는 양기탁의 연보를 조사해보았다. 이번에도 이월송의 기억은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탁은 널리 알려져 있는 신민회 관계 ‘105인 사건’과 ‘양기탁 보안법 위반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던 중 1915년 2월 소헌황태후(昭憲皇太后)의 대상에 당하여 특전이라는 명복으로 석방되었다.[40]

---

38) 광동혁명역사박물관 편, 『黃·軍校史料(1924~1927)(1982), pp.522~87.』

39) 水野直樹, 『黃·軍官學 學朝鮮人中國革命上朝鮮民族解放運動』(-)『朝鮮史硏究會會報』 제86호 (1986. 12). pp. 8~9참조.

40) 失野挑郞 『京城府史』 제3권 朝光印刷株式會社, 1941), pp.283~84. 이는 金必子, 『梁起鐸硏究』 『北岳史論』 창간호(국민대학교 국사학과, 1989),p.260 재인용. 이하 양기탁에 관한 사항은 이 논문에 따랐다.

■ 해외파견 된 사람들의 불망비 이

출옥 후 그는 평남 강서군 쌍룡면 신경리로 거주제한을 당하였으나 이듬해 만주로 탈출하였다. 양기탁은 각처의 무장독립운동 지도자를 탐방하여 투쟁방략을 논의하던 중 천진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1918년 12월 조선으로 강제송환되었다. 그는 다시 거주제한을 당하였는데 그가 2년동안 유배되었던 곳은 전라남도 거금도였다. 그가 유배지에서 풀려난 것은 1919년 12월, 잠시 『동아일보』의 편집감독에 있었으나[41] 그후 다시 만주로 탈출하여 의성단(義成團), 정의부, 고려혁명당에서 활동했다.

이월송이 어려서 본 양기탁은, 거금도가 아닌 바로 완도의 고금도에 유배 당했던 것이 분명하며 소안인들과 어울렸던 것이다. 이월송이 8~9세일 때면 1918년경으로 그 연대 역시 양기탁의 유배기한과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지에는 이월송이 간도 용정에 파견되었다고 회고하는 임재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씨는 1891년에 신지면에서 출생하여 서울융희중학교를 마쳤고 24세에 서울에 있는 모 독립운동단체의 밀명을 받고 소만국경 간도에 파견되어 약 20년간을 시베리아 남만주를 무대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그는 김좌진 장군의 휘하에 있었다."[42]

그가 24세였을 때면 1925년으로 수의위친계에서 황포군관학교에 계원을 파견했던 때와 일치한다. 수의위친계에서 파견한 임재갑이 양기탁과 연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양기탁과 김좌진이 같은 동아리의 항일조직에 참여하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양기탁과 김좌진은 1926년 4월 길림에서 결성된 것으로 알려진 고려혁명당의 조직에 함께 참여하였다. [43]물론 이것이 소안과 해외 독립군 지도자 양기탁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며 새로운 자료에 따라서는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된다.

이제 남아 있는 방법이란 수의위친계에서 북경이나 간도에 파견하였다는 사람들의 후손을 면담하고 파견된 인물들의 묘의 묘비명을 확인하는 길밖에

---

41) 앞의 『東亞日報社史』 Ⅰ, p.110.
42) 앞의 『안도군지』, p261.
43) 고려혁명단의 구성은 위원장 양기탁, 책임비서 이동구였고 김좌진은 15명 위원들 중 한 사람으로 있었다.蔡根植, 『武裝獨立運動祕史』(대한민국공보처,1947), p139. 그러나 임재갑은 1927년 8월에 결성 되는 신간회 완도지회의 회장이었으므로 그의 해외파견 연대는 신빙성이 없다.(『조선일보』, 1927.9.5.)

없었다. 그러나 그 후손으로 현재 소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수소문 끝에 소안면 진산리 소진마을에, 용정에 파견되었다는 박화국(朴化局)의 묘비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용정에 파견된 사람들 중에는 대성(大成)이나 동흥(東興), 은진학교(恩眞學校)에 학적을 두고서 항일조직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월송의 회고를 염두해두고 진산리로 향했다. 그 비는 소진마을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비각이 있었다고 하나 돌보는 후손이 없는 탓으로 지금은 비석만이 덩그랗게 서 있었다. 전면에는 한자로 '고 박화국 군영묘 불망비'라 새겨져 있는데 후면의 내용 중 우리의 관심과 관계 있는 부분만을 풀어 옮기면 대강 그것은 "3세시 부친이 죽어 홀어머니와 가난하게 자랐다. 광주 숭일학교와 간도 대성중학교에서 수학했다. 1924년 병마로 귀향한 후 6개년 동안 근역에 알려질 정도로 노력하다 1928년 9월 16일에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수의위친계에서 파견하였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가 대성중학교를 수학했음은 분명하다. 일단 회고된 인물들이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은 믿어도 좋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앞에서 우리가 지적한 문제들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 일심단의 조직과 사업내용

계속하여 이월송의 회고를 기반으로 일심단에 대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심단은 1927년 음력 1월 10일 조직되었다. 일심단 역시 송내호의 지도하에 조직된 비밀결사였다. 단원은 위경량(魏京良), 이수산(李守山), 송내호, 최평산, 이평존, 김홍기(金洪基), 김장안(金章安), 주채도(朱彩道), 이월송, 김광재(金光才), 김재수(金載樹)였다. 단장은 이월송, 경성주재원은 송내호, 소안에 있는 본부직원은 주채도와 이평존에게 맡겨졌다. 일심단의 결성은 수의위친계가 '유야무야'되어가던 형세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일심단이 만들어질 때인 1927년 초 송내호는 표면상 신간회 본부의 핵심활동가였고 그의 활동영역은 전국적으로 미쳤기 때문에 자연히 수의위친계 조직은 '유야무야'되었을 것이고 송내호는 그에 따라 고향에다 더 젊은 인물들로 새로운 비밀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27년 당시 이월송은 19세였고, 모든 단원이 20-25세였다.

일심단의 사업내용도 수의위친계와 같았다. 광동군사학교(光東軍事學校)에 김홍기를 책임자로 김광재(金光在), 김재수 등 세명을 파견하였고 일본에는 김장안, 위경량, 이수산, 정광택(鄭光澤) 등 10여명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러 의문과 문제점은 수의위친계의 경우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다.

1927년 5월 이른바 소안학교사건이 일어났다. 남해의 한 고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언론에 의하여 곧 전국적인 사건이 되었고 일본에서의 조선인 항일운동을 고무하기도 하였다. 1927년 5월 10일 완도서장과 경찰관 7명, 군수 이하 군속 6명이 경비선으로 소안도에 이르러 사립 소안학교를 폐쇄시켰다. 근거법령은 사립학교령 제10조였다. [44]1908년 8월에 칙력으로 발표된 이 법령에 따르면 안녕질서와 풍속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때 학부대신은 사립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었다.[45] 이때 사립소안학교의 학생수는 150명이었다. 경찰은 교통을 차단하고 신문기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 면민은 흉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알렸다.[46]

잠시 소안학교의 역사를 보겠다. 소안도는 원래 궁방전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수조권자는 이기용이었다. 이기용은 사도세자의 5대손이다. 1905년 시강원 시종관을 지냈고 돈명의숙(敦明義塾)과 수학원(修學院)을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47]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조선귀족령에 의해서 자각이 되었다. [48]소안의 사람들은 1909년 이기용에 대해 '전면 토지소유권 반환청구소'(일명 토지계쟁사건(土地係爭事件))를 제기하였다. 토지소유의 법적 관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이기용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 소안 토지계쟁사건의 소송은 13년 동안 계속되었다. 소안의 최성태·김사홍·신완희·이한재(李漢宰)는 소안과 서울을 오르내리며 이 소송에서 소안을 대표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구전되어오는 사실 이외에도 『조선일보』에 이기용과 소안사람들 사이에 토지계쟁사건이 있었고, 13년만에 소안사람들이 승소했다[49]는 기사와 "소안은 집요한 토지계쟁사건에 귀가 익은 곳이다. 13년 동안 다투어 얻은 토지는 이미 민유지로 해결"되었다[50]는 기사가 있으나 소송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었다. 평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던 터라 이 사람 저 사람

44) 『동아일보』(1927. 5. 17)에는 사립학교령 제16조로 되어 있으나 10조의 오기인듯하다.
45) 국회도서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Ⅶ(1971),pp277~79.
46) 『동아일보』(1927. 5. 17)
47) 大恒杖夫, 『朝鮮神社大同譜』(京城日報社, 1912), pp.7~18.
48) 『每日申報』(1910. 10. 8)
49) 『조선일보』(1927. 5. 17).
50) 『조선일보』(1927. 5. 18).

에게 물어보았으나 어디에 이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두 학생의 도움을 받아 『매일신보』 12년치를 모두 뒤졌으나 아 사건은 나와 있지 않았다. 기껏 이기용 자작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기사를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 다음 단계로 나는 제2차 소안답사 때 소안면사무소의 옛 토지대장을 조사했다. 그러나 말끔히 카드식으로 정리된 그 토지대장은 기껏 10년 전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었다. 법령기일이 지나면 모두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다는 면사무소 직원의 말이 있었다.

■ '마음 속에 맺은 정을 풀기도 전에 떠나간' 이시완 선생

1921년 2월 14일 토지계쟁사건에서 승소하자 면민들은 이를 기념코자 뜻있는 일을 하기로 하고 의논한 결과 1913년부터 경영해오던 사립중화학원을 학교로 승격시키기[51]로 하고 의연금을 모금했다. 무려 1만 400여 원이 모아졌다. 가학리에 교사가 건축되었다. 1922년 당국의 인가를 받았고 초대교장 김사홍, 2대 교장엔 김경천, 1923년 5월 16일 개교 이래 5년 동안 경영되어 오던 터였는데 갑자기 폐쇄조치에 당한 것이다.[52]

폐쇄으 이유는 복합적인 것이었으나 이것은 조선일보가 꼬집었듯 "너무 잘되어 가는 것이 문제"[53]였다. 소안학교의 명성은 인근에 자자한 것이었다. 중화학원이 가지고 있던 민족교육적 측면은 소안학교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강정태, 김경천, 송기호, 최형천, 김형곤, 백태윤, 김병섭, 김남곤 文南均, 朴得洙, 申洞熙, 崔洪吉, 鄭昌南 등이 소안학교 교사들이었고[54] 수도승이던 박영희, 이호견 부부, 이시완, 광주의 김창선(金昌鮮, 전남도의회의장)이 초빙되거나 자청하여 소안학교에서 가르쳤으며 하르빈에서도 평안도 안주 출신의 강순조(康淳조)가 빈광국을 뒤이어 초빙되었다. 이중 지금도 소안사람들은 이시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소안사람들에 따르면 『동아일보』 지방부장을 지내던 이시완이 현직을 버리고 주위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소안학교에 와서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월송 역시 그

51) 『조선일보』 (1927. 5. 17).
52) 『조선일보』 (1927. 5. 17).
53) 『조선일보』 (1927. 6, 5).
54) 빈광국이 중화학원의 교사였는지 소안학교의 교사였는지에 대해서 종래 엇갈리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월송에 의하면 그는 중화학원에서 빈광국에게 배웠으며 그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다고 한다. 따라서 중화학원 교사였을 것이다.

렇게 알고 있었다. 이월송은 거기에 덧붙여 이시완이 북청사람으로 와세다 대학 출신이며 당시 독신이었다고 말해주었다. 20년대 초반 이시완이 중앙의 여러 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서울청년회계의 인물이었다. 1923년 9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조선노농대회의 주동인물 4인중의 1인이었다.[55] 이 준비회는 서울청년회의 조직이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전조선청년당대회에는 북청청년회대표로 참가하였다. 이때 이시완과 소안에서 참석한 신동희· 강정태·신우승이 서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시완은 서울청년회를 통하여 소안사람들과 연계되어 소안학교교사로 왔을 이시완이 언제 부임하여 언제 소안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작사·작곡한 「이별가」라는 노래가 남아 있다. 현재 일흔이 채 못된 소안사람들도 모두 부를 수 있는 이 노래에는 이시완의 소안과 소안사람들에 대한 끓는 정이 담겨 있다. 또한 이 가사는 그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떠나는 것이며 그 사정이란 '험악한 파도'와 같은 것이라 표현되어 있다.[56]

■ 일제의 소안학교 폐쇄전략

소안학교는 교세가 날로 발전하여 노화도, 청산도, 해남 심지어는 제주도에서까지 유학생들이 모여들었다. 한때 소안학교는 그 부설로 2년제 중학부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영어·수학·사회·역사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중학부의 학생은 기십명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는 이에 대해 소안학교를 직접 권력이 미칠 수 있는 공립학교로 바꾸기 위한 전략을 세웠던 듯하다. 앞서 본 대성회사건으로 송내호 등이 구속되자 주민들 사이에서 소안학교를 공립으로 하자는 첫 주장이 나왔는데[57] 폐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볼 때 이는 일제의 은밀한 책동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후 1925년 2월경 완도 군수 김상덕(金商德)은 소안학교 교장 김경천을 만난 공립으로 바꿀 의사를 타진하였고 김경천은 다시 면민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결과는 "6천 면민 절대다수의 불찬성"이었다.[58] 이때부터 일제는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회유하여 공립학교로 바꾸어보려던 계획을 단념하고 소안학교를 폐쇄시킬 전략을 세웠다. 그 첫단계로 우선 1925년 6월 소

55)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p.81.
56) 김경배 (소안고등학교 음악교사)채보.
57) 『동아일보』(1926. 3. 5).
58) 『동아일보』(1927. 5. 17). 『조선일보』(1927. 5. 17)

안사람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안학교에서 불과 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공립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일제의 이 전략은 단번에 실패로 드러났다. 소안학교는 학생수가 150명이었으나 공립학교는 30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1927년 1월 이모외 35명은 비밀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소안학교를 폐쇄시켜줄 것을 진정했다.

-소안학교는 축제일에 휴학치 않는다

-국기를 게양치 않는다

-국상(國喪)중에도 상장을 붙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상을 반대하는 것이다[59]

일제당국은 이 진정서를 호재로 삼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거기에다 1924년 3월에 열린 '소안학교회의'는 일제의 전략이 구체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 최형천과 김모는 수업료문제를 두고 크게 의견이 부딪쳤다. 최형천은 "전과 같이 남자애에게 35전을 징수하고 여자 및 남자라도 극빈자의 자제에게는 무료로 해야 한다. 학교비도 유·무산으로 등급을 매겨 배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김명륜은 "전부 1원을 평균으로 하고 빈부가림 없이 평균분배하자"고 주장했다. 다수결원칙이었으므로 최형천의 주장이 채택되었다. [60]이 일을 계기로 김모는 극비밀리에 30여 명의 연서를 받아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때의 진정 내용은 "소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군과 사회주의자를 양성하는 곳이다."[61]라는 것이었다. 연서를 한 30명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62] 일제당국은 이를 계기로 소안학교를 폐쇄조치하였던 것이다.

소안학교가 폐쇄된 후 아이들을 공립학교보다 오히려 야학에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기숙, 이갑준, 김수천(金洙千), 박채신(朴彩信), 김민곤(金敏坤), 김제은(金濟銀), 이각재, 부찬옥, 白成安, 鄭海星, 黃泰斗 등은 각 마을에 야학이나 서당을 개설하였던 것이다.

---

59) 『동아일보』(1927. 5. 17).
60) 『조선일보』(1927. 5. 17).
61) 『조선일보』(1927. 5. 17).
62) 『조선일보』(1927. 5. 18).

■ 재일본 조선노동총동맹위원장 정남국

잠시 정남국에 대하여 보기로 하겠다. 각종의 사료 외에도 나는 소안답사 중 그에 관한 두 문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앞서 소개한 임재갑이 1951년에 작성한 정남국의 연보(年譜)이다. 다른 하나 역시 김영현(金榮鉉, 1893년, 완도군 군외면 출생, 서울 융희학교 졸업, 완도중학교사 역임)[63]이 작성한 연보로 현재 이 두 문건을 소장하고 있는, 완도읍에 거주하는 정남국의 아들 정기탁(55세)에 따르면 정남국은 생존해 있을 당시 임재갑이 작성한 연보를 직접 보았다고 한다.

정남국은 1897년 7월 소안면 비자리에서 태어났다. 완도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농업학교에 진학하였으나 빈한한 가정형편으로 중퇴하였다. 3.1운동 당시 상해임시정부 군자금 모금을 담당하였다. 영광·나주·함평·무안 등지가 이때 그가 활약한 지역이었다. [64]연보에 따르면 그는 1919년 고려혁명동지회총무를 지내는데 그 단체의 실상은 알 수 없다. 송내호와 손아래 동서간으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배달청년회나 대성회 등을 통한 소안에서의 활동은 이미 우리가 보(에 의하면 1923년 그는 전라노농연맹상임위원, 남조선노동총동맹위원, 전국농민동맹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1925년 말에서 1926년 사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성회사건으로 그는 1924년에 구속되어 1925년 10월에 출옥하는데 27년에는 이미 재일본조선인노동총동맹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일본으로 간 것은 노동단체의 파견형식이었다. [65]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정남국이 당시 조선공산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언제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에서 활동하던 1927년 그는 조선공산당 일본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66]그는 복교동맹의 대표자격으로 신간회 동경지회의 강소천(姜小泉)과 함께 일본의 문부대신을 방문하여 항의문을 전달하기도 하는데[67] 강소천 역시 조선공산당 일본부의 간부였다.

---

63) 『완도군지』, pp.263~65.

64) 金榮鉉, 『故鄭南局先生 歷』, 가로 약30센티미터(세로 약 130센티미터의)한지에 붓글씨로 되어있다.

65) 앞의 자료. "전국노총연맹중앙위원의 자격으로 동경에 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그러한 단체는 없었다. 조선노농총동맹의 중앙위원 자격일 수는 있지만 그 중앙위원 명단에서 아직 정남국을 확인할 수 없었다.

66) 京城地方法院檢事局, 『第三次 朝鮮共産黨·高麗共産青年會事件檢擧/件(1928), p396. 이는 앞의 책,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p214재인용.

나는, 정남국이 어떤 조직적 기반으로 방대한 조직으로서 1925년 2월 결성되는[68] 재일본 조선노동총동맹위원장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았다. 두 가지 추측이 가능했다. 조선공산당의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그 하나이다. 소안학교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공의 중앙집행부는 "조공 일본부가 이 사건을 맡아 팜플렛을 작성, 배포함으로써 선전을 강화해 나간다"[69]는 전략을 세우는데 이 전략이 일본에서 정남국이 정력적 활동을 벌이는 뒷받침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다른 하나는, 정남국이 그러한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가 주로 오사카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완도노동자들의 세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다. 20년대 당시 소안도는 일본으로 가기에 편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복목환(伏木丸), 군대환(君代丸)이라는 배가 부산-여수-완도-소안도-노화도-목포-오사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70]이러한 사실은 일제의 관헌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오사카지역에 전라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이 자료는 "1923년 2월부터 제주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조선인 전용의 기선항로가 개설되었다."[71]고 말하고 있다. 1923년 9월 말 현재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 2만 1,984명의 조선인 중 전라남도 사람은 51.6퍼센트에 달하는 1만 1,352명이었다. [72]김진택에 의하면 그가 속한 소안초등학교 8회 졸업생(1937년 졸업) 44명 가운데 40명이 일본으로 갔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단순노동자로 전락했으므로 이들이 정남국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정남국은 확인되지 않는, 1928년 4~5월 초의 어느 시기에 일본에서 체포되었다. [73]그 후 그를 체포한 것은 신의주 경찰이고[74] 그는 신의주로 압송된 것으로 보인다. 공판은 1929년 7월 17일 시작되어 1930년 3월 15일 2심 판결이 있었다. 정남국의 형량은 1년 8개월이었다. [75]이때 정남국과 함께 신의주경찰에 검거되어 공판을 받은 소안인들로 정창남(鄭昌南), 위경영(魏

67) 『조선일보』(1927. 8. 7).
68)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第二券(東京: 三一書房, 1974), p.1, 151.
69) 姜德相· 村秀樹『現代史資料』29. p.105.
70) 이월송, 김진택 면담.
71) 앞의 책,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第一卷, p.345.
72) 같은 책, pp.371~72.
73) 『조선일보』(1928. 5. 3).
74) 『동아일보』(1929. 7. 18).
75)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Ⅴ, 共産主義運動 篇 (東京:原書房, 1967), pp335~36, p.348.

京永)이 있다. 76)나는 아직 이 사건의 공판기록을 직업 입수할 수 없어 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은 바로 제 3차 조선공산당검거사건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제 3차 조선공산당은 1926년 9월부터 1928년 초까지 존재했다. 가입시기는 알 수 없지만 소안에는 제3차 조선공산당 조직이 존재했다. 당원은 신준희·최형천·강사원·정남국·신광희·위경영·최평산이었다. 77)이들은 바로 소안에서의 갖가지 민족운동의 전위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었음은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다. 사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조선공산당의 소안조직은 더 광범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소안의 민족운동과 송내호의 죽음

정남국이 구속됨에 따라 일제는 대성회사건에서부터 의심하여 왔던 소안 민족운동의 사상적 성향에 대해 단서를 잡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른바 제2차 소안사건 혹은 배달청년회사건이라 불리는 대규모 검거사건은 1927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앞서 언급된 바 있지만, 1928년 8월 28일 완동청년동맹은 배달청년회를 해체하고 그것을 완도청년동맹 소안지부로 재편성하기로 결의했다. 완도청년동맹 회장 신광희는 해체총회에 대비한 선언서 작성을 최평산에게 의뢰했다. 최평산은 마침 여름방학으로 귀향해 있던 배달청년회원이자 와세다대학 유학생인 이정동에게 다시 그 작성을 부탁했다. 이렇게 이정동에 의하여 작성된 선언서는 해체대회를 앞둔 1928년 11월 9일경 인쇄되었다. 이 선언서는 당시 사회운동단체들로부터 나오는 그밖의 그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완도청년동맹 소안지부를 설치하자
-반대단체를 박멸하자
-소안사립학교 복교운동을 후원하자
-민족단일당 수립을 촉진하자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가 되자
-총독부 폭압정치를 대중 앞에 여지없이 폭로하자

---

76) 정남국·정창남·위경영의 공판사실과 제3차 조선공산당검거사건은 앞의 책,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pp.306~16 참조.
77) 姜德相· 村秀樹 編p 『現代史資料』 29, p.104.

경찰은 이 선언이 “국체의 변력 및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달청년회 회원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78]

최평산, 최형천, 이각재(李恪宰), 신광희, 김남두, 주채도, 강정태, 이정도, 송내호, 신준희, 김통안, 김홍기, 김병규 등 13명이 구속, [79]1930년 3월 31일에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제2심선고공판이 있었다. 최평산·최형천·신준희·강정태는 징역 3년, 신광희·김병규는 징역 2년 6개월, 김통안·김남두·주채도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80]

그러나 27년 말에 구속되어 이 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인 1928년 12월 20일, 병보석으로 출감하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송내호는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81]김홍기 역시 병보석 중에 있었으며 이정동과 이각재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였다.

신간회본부에서는 송내호의 장의를 사회단체연합장으로 할 것을 추진하였다. [82]이것은 이미 죽은 송내호의 활동에 대해 지극한 추모와 존경을 바치는 의미의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단체연합장은 경찰에 의해 금지되었고 상경한 가족들에 의해 장례를 간략하게 치러졌다.

■ 길이 빛날 그 이름, 해방의 섬 소안이여

그 태풍이 불어 바다는 들끓는데도 하늘은 청정하던 5월 13~14일. 나는 소안도의 유일한 여관인 ‘낙향여인숙’에 머물렀다. 이 여관은 버려진 듯 초라한 옛 선착장의 방파제 끝에 달려있었다.

그곳이 바로 송내호의 생가였다. 이틀밤을 지내는 동안 밤이면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잠자리가 바뀐 탓도 있었지만 어디 그뿐인가. 한 노인이 방파제 끝에 서서 무연히 손을 들어 보이며 내게 말했었다.

“저쪽에 다래도가 있소. 그곳에서…경찰서로 실리간다던 네 사람이 가던 중에…… 총맞아 죽었소. 해방되었다는 나라에서, 해방을 찾을라고 목심 다 바치던 사람들이 아니오. 그 사람들이…….”

30년대에 들어서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안의 민족운동은 표면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8.15로 이 섬은 또 한번 거센 바람에 시달려야 했다.

---

78) 『判決摘示/事實』. pp.33~38.
79) 『조선일보』(1928. 10. 16, 1927. 10. 25).
80) 『判決摘示/事實』.
81) 『동아일보』(1928. 12. 21).
82) 『조선일보』(1928. 12. 22).

소안을 생각하면 완도 신지도 출신의 시인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최금동의 시가 생각난다.

“……망국의 한을 품고/산천이 캄캄할 때/옥에 갇히시고/총칼앞에 쓰러지면서도/온 몸을 불태워서/이 역사 비추었거늘……길이 빛날 그 이름/해방의 섬 소안이여.”83)

붓을 놓으며 내가 느끼던 그 가슴 저린 순간들과 놀라움들을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었는지 걱정스럽다. 전문적인 논문으로 쓰지 않고 대중 잡지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소안을 한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이다.84)

83) 미발표작. 앞으로 소안에 세워질 비에 새겨질 시이다.

84) 도움 주신 소안의 많은 분들, 노령에도 불구하고 나의 면담 편의를 위해 제주도에서 와주신 이월송 선생님,朴洞寅(22년생,朴起淑의 아들), 金鎭局(24년생, 김경천의 아들), 金南天(24년생, 金南斗의 동생), 崔南植(74세, 최기정의 아들), 金鎭澤(22년생, 김사홍의 증손, 김경천의 조카) 高基得(21년생), 해남에서 증언을 위해 와주신 金重·(1898년생), 김사홍의 딸)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또한 김제정 전 면장, 김용리 현 면장, 소안고등학교의 김경배 교장 선생님, 윤태인 선생님, 농협지소장님, 강정일 농협상무, 김홍률 우체국장, 삼세약국의 박한규님의 도움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2) 일제하 소안도 민족해방운동가의 수용과 전승

나승만*

Ⅰ.머리말
Ⅱ.민중의 집결지이자 서남해 항로의 요충지 소안도
Ⅲ.소안도 주민들과 민족해방운동
Ⅳ.민족해방운동가의 수용과 전승
Ⅴ.민족해방운가 자료들
Ⅵ.논의의 정리

Ⅰ. 머리말

정치의 사전적 개념은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협력·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이라고 되어있다.[85]사회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대립의 항쟁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활동과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부단히 정항하고 적극적으로 유구하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고도 조직적인 노략을 경주하는 것을 정치의 본질로 본다. 이러한 지배와 저항을 본질로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배와 조정의 입장이 강조되는 경우는 국가중심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고 저항적 입장을 강조한 것은 피지배계층인 민중의 입장이 강조 된 것이다. 국가지배이데올로기의 이념적 틀에 관심이 많은 기존의 정치학에서는 통치, 지배, 조정에 비중을 둔 연구가 수행되겠지만 민요학에서는 민중적 입장에서 정치를 규정할 것이고, 지배집단에 저항적인 노래에 비중을 둔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

*민족과 정치/비교민속학회 편(민속원, 2004).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85) http://kr.encycl.yahoo.com

민요학에서 정치민요 또는 민요의 정치적 성향을 논의할 때 참요를 논의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조성일은 정치와 관련된 민요의 범주를 참요와 서정요로 설정했는데, 그가 말한 서정요로 정치적 형편에 대한 인민들의 느낌에 근거하여 창조된 민요들, 정치적 사변, 정치적 인물, 정치적 조치 및 그것들과 관계되는 정치형세에 대한 근로인민들의 기본적인 식견과 태도를 반영하고, 근로인민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이상의 실현을 위해 분투하는 혁명적 정신을 표현한 노래들로 제한했다. 그리고 참요는 어른들이 당시 통치배들의 폭정과 추태를 폴로 규탄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어린이들의 입을 통해 불리어진 노래라는 점에서 일반 동요와 구분했으며, 9세기경 발생 발전하여 12세기 후반기부터 개화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86]박연희의 경우도 정치민요의 개념을 논의하는 글에서 피지배자인 민중의 지배층에 대한 항거, 비판적 성격에서 그 특성을 찾았고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직접 비판의 소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표현기교에서 풍자성을 띠고 있으며, 비유나 상징, 음사(音似)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노래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87]

민요의 개념을 산업사회의 노동운동과 반독제 민주화 운동의 저항가요까지 확장한 논의들도 있었는데 이런 논의들에는 자연스럽게 민요의 정치성이 담겨있다. 손종흠은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민요의 개념도 역동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산업사회의 민요, 시위에서 부른 노래들도 민요의 범주로 인식하고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88]글쓴이 역시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가를 민요의 범주로 간주하고 논의한 바 있다.[89] 당시 글쓴이는 일제 강점기 서남해 도서지역에서 불렀던 민족해방운동가를 한국민요의 역사체계에서 근대민요의 범주로 인식하고 논의했으며, 산업사회 또는 민주화운동 시기의 노래들도 현대민요의 범주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서술한 바 있다[90]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은 일제 강점기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불렀던 민족해방운동가다.[91]여러 번 밝힌 바 있지만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 세력들이 주체적 입장에서 외부의 노래를 수용하여 불렀거나 개사하여 불

86) 조성일, 『민요연구』(연변 인민출판사, 1983)106~7쪽.
87) 박연희, 『정치민요의 개념』, 최철 편저, 『한국민요론』(집문당, 1986),153쪽.
88) 손종흠, 최철 편저, 『민요의 현대적 의미』, 『한국민요론』(집문당,1986).
89) 나승만, 『소안도 민요사회의 역사』, 『도서문화』 19집(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3).
90) 나승만, 『민요사회의 사적 체계와 변천- 전남지역의 민요사회를 중심으로』, 『민요와 민중의 삶』(역사민속학회,1994)
91) 민족해방운동가요라는 이름은 글쓴이가 갈래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다. 주민들은 애국가, 독립운동할 때 부른 노래, 야학 창가 등으로 부른다.

렀거나 창작하여 불렀던 민족해방운동가는 민요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92] 논의의 내용은 전승현장 소안도, 연행주체인 주민들, 전승맥락, 전승자료들이다. 밝혀보고자 하는 주제는 연행·전승지역의 특성, 연행주체의 정치성, 전승과정, 자료의 사설에 담긴 의미 밝히기로 설정한다.

Ⅱ. 민중의 집결지이자 서남해 항로의 요충지 소안도

소안도는 전남 완도군에 속한 섬으로 면적은 23.2㎢, 해안선 길이 약42㎞, 체도인 완도읍에서 남쪽14.8㎞ 지점에 위치한다. 남쪽과 북쪽이 장구 모양으로 이어져 있다. 농산물이 풍부하고 인근 바다에서는 김이 많이 생산되고 어족자원도 풍부한 편이다. 소안도에서 사람이 처음 살았던 것은 패총과 고인돌등 선사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부터로 추정하고 있다.[93]문헌 기록에 소안도가 처음 나타난 것은 1648년의 조선왕조실록에서였다. 고려말과 조선 전기 이 일대가 왜구의 침범으로 시달렸으며, 임란 직전 달량진사변으로 空島 상태가 되었고, 양란 중에도 공도상태였다. 그리고 양란 직후부터 17~18세기 사이에 다시 입도한다. 직전 거주지는 강진, 장흥, 해남, 나주, 노화 등지였다.

이해준이 분석한 1876년의 청산진호적대장에 의하면 총337호 중 홀아비, 과부가 236호로 전체의 70%에 이르렀고 170명의 노비를 소유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참고되는 기록으로 숙종 30년(1704년)전라감사의 장계 중 소안도가 良丁.公私賤의 도피소굴이라는 기록을 제시했다.[94]

한국 서남해의 해양사에 비추어 소안도 주민들의 이주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서남해가 번영하던 고려 후기까지 번영을 누리고 살았고, 원,명이 동아시아를 장악하여 바다의 통행을 차단하던 海禁時代에 접어들어 고립되었고 왜구의 침략을 받아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양란을 당하여 장흥 강진 등 육지로 이주하였고, 양란 후에 다시 귀도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

92) 나승만, 『일제 강점기 항일민족해방운동노래의 주체화 과정』, 『배종무총장퇴임기념 사학논총』)배종무총장퇴임기념사학논총간행위위원회,1994),543쪽.

93) 최성락, 『소안군도의 선사유적』, 『완도소안도지역의 문화성격』,제7회 도서문화심포니움(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1993)

94) 소안도의 입도조와 시기,19세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준의 글을 참고하였다. 이해준, 『소안도의 역사문화적 배경』, 『완도소안도지역의 문화성격』,제7회 도서문화심포니움(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3).

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안도에서 생산활동의 진행은 항해와 어로에 기반을 두고 살면서 농업을 겸하는 반농반어의 형태를 유지하다 해금시대에는 주로 농업적 생산기반에 의지하였으며, 양란 이후에는 다시 어업이 활성화되었고 일제 때 김 양식을 도입되면서 경제적 번영을 누린다. 이로 보면 서남해을 보롯해 한국 도서지역은 어로와 해양활동이 활발하던 시대가 번영하던 시기였고, 바다활동이 번영의 기반이었다. 생산 터전의 변화로 보면 '바다-산. 반-논-바다'로의 변동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양란 이후 서남해 일대 도서에 주민들이 쇄도하게 된 것은 바로 바다가 주는 경제적 부에 있다고 판단된다.

지리적으로 소안도는 항로상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목포와 제주를 왕래하는 선박들이 이곳을 경유했으며, '인천↔목포↔여수↔부산↔오사카'를 왕래하던 기선들도 이 항로를 이용했는데, 기상조건에 따라 소안도 맹선리 포구에 정박했다. 각지의 배들이 기항하면서 일찍부터 외부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95]그리고 1910년대부터 김양식을 시작하여 바다에서 돈을 벌어들였다. 김 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번영을 소안도 주민들은 교육투자로 연계시켰다. 그래서 마을마다 학원과 야학을 세웠으며, 가학리에 사립 소안학교를 설립해 교육에 집중했다. 그리고 외지에까지 유학을 보내게 되었다. 이 시기 완도군은 전국 군단위에서 해외 유학생, 특히 일본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게 되었다.[96]

Ⅲ. 소안도 주민들과 민족해방운동

일제 초기 월항리 김해김씨들이 중동이 되어 소안도의 민족해방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계기는 1909년에 일어난 소안면 토지계쟁사건이었다. 독립적인 자주경제를 유지했던 소안도가 한일합방 과정에서 궁방토로 귀속되어 전 주민들이 궁방의 소작인으로 전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사홍(1883.8.17. ~ 1945.1.15.)은 26세 되던 1909년 소안면 토지계쟁사건에서 최성태, 신완희, 이한제와 함께 면민대표 4인 중 한사람으로 선출되어 1922년 승승판결을 받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30세 되던 1913년에 사립 중화학원을 설

95) 박찬승, 『일제하 소안도의 항일민족운동』, 『도서문화』 11집 완도 소안도지역의 사회문화적 성격 연구(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1993),84~85쪽.
96) 박찬승, 앞의 글, 83쪽.

립, 대국지사를 양성, 항일운동의 진원지를 만들었다. 후일 항일운동의 성봉장이 된 인물들이 이 학교 출신들이었다. 1922년 토지계쟁사건의 승소를 기념하여 설립한 사립 소안학교의 초대 교장을 지냈고 학교가 폐교된 뒤에 향리에서 끝까지 항일운동을 수행했다.[97] 김경천(1888~1935)은 어려서 김사홍과 마찬가지로 보길도 고암산 남은사 고승 문하에서 수학, 한학에 능했으며 당대의 석학으로 알려졌다. 사립 중화학원의 교사, 3대 교장을 지냈고 1924년 사립 소안학교 교사, 2대 교장을 지냈다. 주채도(1907~?)는 사립 소안학교 출신으로 1927년 일심단원으로 활약했고, 1927년 배달청년회사건으로 투옥, 징역 2년 복역했다.

이월송이 일제 강점기 소안도 사람들의 투옥 기간을 합산해서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 총 36명이 66회에 걸쳐 투옥되었고 기간은 117년 7개월이었다고 한다.[98]민족해방운동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주채심의 경우도 그이 친오빠 주채도가 배달청년회와 일심단에서 비밀결사원으로 활약하다 배달청년회 사건으로 1927년에 투옥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주채심의 어머니가 딸과 함께 김쌈하다 아들 생각이 나면 민족운동가를 부르도록 하고 모녀가 함께 울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소안도에서는 마을에 투옥된 사람이 있으면 겨울에도 그를 생각하여 이불을 덮지 않고 잤다고 한다.

소안도 사람들이 일제 때 민족해방운동을 시작한 것은 김사홍(1883~1945),김경천(1888~1935),송내호(1895~1928),정남국(1897~1955)으로 이어지는 이지역 지도세력들의 영향 때문이었다. 당시의 민족해방운동 지도세력들이 교육 운동을 통해 앞장서 이끌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다수의 소안도 사람들이 민족해방운동에 투신했다 그중에서도 송내호와 정남국은 외부로 나가 민족운동을 지도한 영웅들이다. 송내호는 소안도에서는 설화화된 인물이다. 그의 고향인 이남리에서는 지금도 송내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분이 아마도 지금같으면 대중이선생 그런 분이었던 것 같어, 19살 때 초등학교 교정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20살 때 영국 함대가 삼도

97) 김진택(남, 71세,소안면 월항리 출신)증언, 목포시 용해동 주공 3단지 아파트 1993년 4월 22일, 글쓴이 현지조사.'월항리의 주도 인물인 김사홍어른은 강직하고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왜정 때는 거의 전부가 다 지지해서 결집된 지도력을 행사했다. 해방 1년전에 돌아가셨다. 그 뒤로 해방되고 체제가 양분되면서 마을 자체가 풍지박산이 되어 버렸다.

98) 이월송(남,84세,소안면 소진리,1992년 6월 23일)의 구술,

(거문도)라고 있어, 영국병사들 죽은 묘도 있고, 영국 함대가 들어오다 풍파에 갖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바자리에 머물 때 학교에 와서 테니스를 쳤는데, 송내호선생이 같이 말을 통하면서 뽈을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 청년들이 왜 영국놈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뽈을 쳐야 그러니까 운동이란 것은 국경이 없다. 누구든지 취미가 있으면 같이 하고 그런것이제 전적으로 적대시하면 안된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였고.....하여튼 인간시회에서 월등한 사람이여. 송내호선생이라면 대중이선생 위하대끼 그런 정도로 했어. 이런적으로 따지는디는 머리를 안숙일 수가 없다 그거여. 민족운동 하면 일본놈들한테 잽혀가니까 형제간에 못할일 한다 그래갖고 타지로 나간 것 같어 우리 추측에는 송내호선생이 서른 네 살에 서울 새브란스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들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디. 송내호선생은 형무소에서 돌아 가겼어. 어머니 말에 의하면 형무소에서 돌아가겼다고 해. 그래갖고 해골을 담어다 자기집 선반 우게다가 오랫동안 보관했죠 장례를 안치르고 훌륭한 분이었어.'[99]

소안도에서는 1910년대에 학원,야학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을 학습하는 한편 소안도 사람들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민족해방운동을 했다. 마을의 지도세력들이 선도해서 학원과 야학을 세웠으며, 사립학교를 설립하는데 주도력인 역학을 수행했다. 그 결과 민족해방동의 이념이 섬 주민 전체에 확산되었고 소안도 주민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민족해방운동가를 부르는 행위도 같은 차원으로 이해되었다.

Ⅳ. 민족해방운동가의 수용과 전승

1. 사립학교를 통해 이루어진 민족해방운동가 수용

소안도에는 전통시대부터 각 마을에 서당이 있었는데, 이를 근대교육 기관으로 개량했다. 1913년 처음으로 중화학원을 설립했고, 그 뒤를 이어 각 마을에서 학원을 세웠다. 그리고 이 학원 내에 야학을 개설하여 주간에는 학원

99) 백종화(남,73세)구술.1993년10월 7일.

으로서 마을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야간에는 야학으로서 마을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야간에는 약학으로 부녀자들을 교육했는데, 학원의 교육목표는 민족계몽을 위한 신교육과 민족의식의 고취에 두었고, 야학에서는 문맹퇴치를 기본 목표로 삼았다. 그러다 소안도 토지계쟁사건의 해결되면서 김사홍을 중심으로 소안사립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학교가 소안도 민족해방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최초의 본격적인 민족해방운동가 학습은 중화학원에서 이루어졌다.[100] 1913년 비자리 당 밑에 설립된 사립 중화학원에서는 정식 교과 과정으로 창가 시간을 편성하여 창가를 학습했다. 중화학원 출신인 이월송(남,84)은 당시의 창가 학습과 창가책에 얽힌 일화를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내가 졸업반 때 서너살 밑의 이학년 후배가 창가를 베껴 달라고 했다. 당시에는 일본 순사에게 들키지 않도록 백지로 두껍게 만들어 바늘로 꿰메 조그마하게 만들고 철필이나 연필로 애국가를 써서 한복 바지 가랑이에 넣고 다녔다. 그런데 그가 베껴준 창가책을 학교옆 주재소 앞을 지나다 빠뜨렸다. 주재소 순사가 보니까 애국가가 많이 써졌는데, 한쪽에 김만득이라고 써져서 그놈을 잡아 어디서 배웠느야고 물으니까 나한테 배왔다고 해버렸다. 주재소 소장이 그 창가 니가 베껴 준거냐, 창가 선생한테 배웠냐고 물었으나 그 분은 이런 창가 무른다고 답했다. 계속 모른다고 말하니까 따귀를 어떻게 때리는지 자빠져 버렸다. 따귀를 칠팔번 맞고.....나가서 유치장에 있는데,.....한참 있으니 창가소리가 나고 그래. 토요일날 다섯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창가가 들었는데....지장을 찍고 학교에 들어가니깐 창가시간이여. 교장실로 들어가서 대략 애기를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손을 꽉 잡고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져 참 잘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잡아가지 못하게 생겼다고....교실로 들어가니까 창가선생이야 학생이야 그냥 공부하다가 막 소리를 치고 나와서 붙잡고 야단이여.'[101]

이월송의 구술에 의하면 소안도 사람들은 중화학원 시절부터 민족해방운동가를 학습했다. 그런데 일제의 감시가 심했기 때문에 민족해방운가는 정식교과 시간에 배우지 못했다. 당시의 창가 선생이었던 강정태선생과 빈광국, 강경환 선생이 민족해방운동가를 보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월송의 구술에

100) 교육운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박찬승의 "일제하 소안도의 항일 민족운동"을 참고하기 바람.
101) 이월송(남,84세,1992년6월23일 소안면 소진리)의 구술자료

의하면 주재소에서 순사가 취조할 때 위의 선생들에게 창가를 배우지 않았느냐고 추궁당했고, 이월송도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던 것으로 보아 민족해방운동가의 학습은 창가시간에 주재소의 감시를 피해 교사들로부터 비밀리에 학습되었던 것을 보인다.

2. 야학을 통해 이루어진 민족운동가의 확산

중화학원 설립 이후 각 마을에서 학원과 야학을 설립했으며, 이 곳을 통해 민족운동가요를 학습했다. 학원은 각 마을에 하나씩 설립되는 추세였고, 맹선학원, 미라학원과 같이 그 마을의 이름을 붙여 불렀다. 학원이 설립되어 야학 기능를 겸했기 때문에 낮에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부녀자들과 문맹자들을 가르쳤다.

1927년 사립학교가 폐쇄당하고,[102] 배달청년회 사건으로 민족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대량검거되자 각 마을의 기층민이 주체가 된 밑으로부터의 교육 운동이 일어났다. 이 때를 기점으로 각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꾸려가는 야학이 일어나는데, 각 마을에서는 야학 교사노릇을 할 만한 사람을 동원하여 4~5명 단위의 소단위 학습운동을 일으켰다. 중화학원이나 사립학교 출신 청년들이 주위의 어린이들을 4~5명 모아 놓고 교육했는데, 한 동네에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14~15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야학에서 학습했다.

실제로 민족해방운동가가 소안도 주민들에게 깊숙이 보급된 것은 각 마을의 학원과 야학을 통해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원과 야학에서는 일경의 감시를 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학습을 실행할 수 있었으며, 노래학습은 민족해방운동의 기운을 소안도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도록 했다.

3. 민족해방운동가의 연행과 전승

일제 탄압이 심해지고 민족운동이 침체되자 야학은 상황 변화에 적응하면서 3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도 민족해방운동가를 부르고, 부녀자들도 민족해방운동가를 부르며 바느질, 빨래질, 밭일 등을 하는, 일상생활속의 노래로 자리잡았다. 그들은 민족해방운동

102) 『조선일보』,1927년 5월 17일 〈절도유일의 교육기관 돌연 폐교을 명령- 전남완도에 돌발한 괴사건 진상형세 험악, 경계엄중〉, 『동아일보』,1927년5월 17일, 〈소안학교 돌연폐쇄〉

가 부르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소안도에서 민족해방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월항리에서 민족해방운동가가 주민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보기로 하자.

월항리에서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끼리 공동체를 조직하여 기숙활동을 했다. 이들이 거처한 곳을 기숙사라고 했으며, 마을 내에서 적당한 방을 얻어 공동으로 생활했다. 월항리에는 두 종류의 기숙사가 있었다. 하나는 사립학교 기숙사였고, 다른 하나는 공립학교 기숙사였다.[103]각기 두 세 곳의 기숙사가 운영되었다. 주채심이 구술한 사립학교 기숙사 운영은 다음과 같다.

'월항리에서는 학교에 갔다 오면 기숙사(김진열의 사랑방, 여80,사립학교 출신,해남으로 출가)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학교에서 배운 노래도 불렀다. 공부시간과 노는 시간을 정해놓고 운영했다. 공부하다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가서 공부하고 놀다 자고 아침에 집에 와서 밥먹고 학교에 가는 생활을 했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기숙사를 정해놓고 했다. 지도교사가 없이 학생들끼리 자치적으로 생활했고 친오빠가 가끔 와서 공부하는 것을 관찰했다. 큰 방에다 각자 자기 자리를 정해놓고 잠도 자기 자리에서 잤다. 한두어 해정도 참으로 재미있는 세상 살았다.

월항리 사람들에게 민족해방운동가를 대중화시키는데 야학이 가장 크게 공헌했다. 그 계기는 사립학교의 폐쇄로 마련되었다. 1927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사립학교가 폐쇄되고 다수의 소안도 민족해방운동가들이 투옥되었다.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 야학이었다. 월항리에서도 다른 마을과 같이 중화학원과 사립학교 출신의 청년들이 약학을 주도하면서 최 말단부까지 민족해방운동가들이 학습되었다.

---

103) 김한호(남,82,사립학교 1학년 다니다 공립으로 전학했음)구술 '기숙사 생활을 했다.보통 한 기숙사에 대여섯명씩 했다.나는 김재육이 집에서 했다. 그분 아들 이름이 김옥로다. 학교 갔다 오면 밥먹고 바로 기숙사로 갔다. 사립학교에서 배운 것 공부했다. 내가 할동할 당시에는 기숙사가 두어개 있었다. 나 다닐때는 여자들이 안다녔다. 소안면에서는 여자가 서니 다녔다. 내가 사립학교 짓어갖고 처음으로 들어갔다. 사립학교에서 배운 창가 "평안북도 마지막끝....."이런 노래를 기숙사에서 불렀다. 나는 사립학교 일년 댕기고는 안다녔다. 그라고 보통학교로 들어갔다. 보통학교에 다닐 때도 사립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다. 학교 안다닌 사람은 같이 안논다. 공립학교 다니면서도 기숙사 생활은 했다. 사립학교에 다닐 때는 사립학생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공립으로 옮긴 뒤로는 공립학교 학생들끼리만 했다. 공립학교 기숙사가 두군데였다. 사립 기숙사는 어딘 지 잘 모르겠다. 앞에서 말한 김재육씨의 기숙사는 사립학교 다닐 때의 기숙사다. 공립 기숙사는 김열호집에 있었는데 왜정 때 남양군도로 징용가서 죽었다. 사립학교 학생들이 원허니 많았다. 보통학교가 수가 적으니 원허니 딸렸다. 아이들끼리 다툼이 심했다. 사립이 없어지면서 공립학교로 끌어 들였다. 그 후에도 기숙사는 계속되었다. 왜정 말기에는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중동이 되어갖고 많았다. 그때 공부 내용은 보통학교에서 배운 것이었다.'

1930년대 이후 야학마저 크게 위협받자 월항리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민족해방운동가를 부르며 노래를 지켜 나갔다. 친구끼리 놀면서도 부르고, 명절에 놀면서 방안에서 부르고 놀았다. 부녀자들 사이에는 수동이 어머니의 노래가 유행했다. 이런 노래를 부를 때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왜냐면 마을 내에 갈등하는 상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경들에게 발각되면 큰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월항리 사람들은 쉬지 않고 발하면서, 불때면서, 밭매면서, 물길으며, 갯일에서, 노저으면서 불렀다. 드러내놓고 부르면 탄압이 무서워서 속으로 불렀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항시 그 마음은 그대로 갖고 있어서 잊지 않았다. 이 시기에 부른 노래를 월항리 사람들은 '식민지살이에 한이 맺혀서 항의하던 노래'라고 말하면서 숨어서 불렀다고 한다. 가슴에 새기기, 또는 속으로 부르기였다.[104]

Ⅴ. 민족해방운가 자료들

1. 수집된 자료들

글쓴이가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노래들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민족운동가계열

1-1
흔매우게 무궁화 만발했드니
동편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므로
아름다운 무궁화는 간곳이없고
보기싫은 사꾸라만 만발했구나
슬프도다 우리에 부모형제난
자유낙원 잃고서 유리하도다[105]

104) 나승만, 앞의 글『소안도 민요사회의 역사』,노래운동의 한계와 변천 참조
105) 김한호(남,82),소안면 월항리 출생,1993년 3월 24일 글쓴이 현지조사

1-2
지공무사 하나님이 우리인류 내실 때
남녀노소 귀천없이 각각자유 주셨네
그진리를 배반하고 약육강식 일삼어
귀중하신 남의지유 빼앗기가 상사라
실푸도다 애처럽다 자유없는 민족아
노예적인 그생활은 죽기만도 못하다
포악하고 무독한 것 악행당했 으므로
골속까지 맺힌병은 천명만기 다된다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남은 손으로
위문하러 오신친구 손목잡고 하는말
내의육신 내영혼은 이세상을 떠나도
남아계신 여러분은 복스러운 생활로
하던말도 다못하여 푸르러진 얼굴에
뜨거운 피눈물이 두줄기로 흐르다
넓고넓은 바다가에 오두막살이 집한채
고기잡는 아버지와 철모르는 딸있다
내사랑아 내사랑아 나의사랑 한민아
내가비록 죽드라도 너를잊지 않노라
한살두살 점점자라 열서너살 넘으니
일본놈께 구박함은 더욱서러 하노라[106)]

1-3
어머님이 울으시면 울고 싶어요
품안에 안기어서 울움을 운다
야아야 수동아 너의부친은
엄동설한 찬바람에 지나북간도
떠나가신 이후로는 지금까지에
한번도 못보이니 이제 이르러
어언간 삼년이 흘러 갔도다
전보에 이르기를 지나마적에

106) 김고막(여,89),월항리 출신,노화읍으로 출가,광주시 북구 용봉동 거주,1993년 3월 25일 글쓴이 현지조사

칼에맞고 불에타진 우리 동포중
네아부지 그가운데 한사람이라
슬프다 애처럽다 마적의 손에
칼에맞고 불에타진 우리 동포야
힘이적고 무기없난 우리 동포야
네아버지 떠나신 그날 밤부터
무사히 돌아오게 아침 밤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들이었건만
그도또한 허사로다 쓸데없더라[107)]

1-4
부모님이 기르실 때 금옥같이 기르니
어린마음 고운얼굴 자랑할만 하도다
한 살두살 점점자라 열서너살 먹으니
일본놈의 구박함은 더욱서러 하노라
부모양친 일가친척 동모들이 만어도
나라없는 이내몸은 항상근심 이로다
의복음식 넉넉하고 고대광실 좋아도
나라없는 이내몸은 항상설음 이로다
조선천지 심삼도에 태극기가 빛난다
올타올타 우리민족 원수갚아 보것다
손을들어 만세불러 태극기를 세우니
무지한 왜놈들이 총과칼로 찔은다[108)]

1-5 〈옥중가〉
평안북도 마지막끗 신으주가목가
세상에 테여난지 몃해되연나
이제붓터 너와나 둘사이에
잇지못할 관게가 셍기엿구나

---

107) 주체심(여78)1992년 4월21일 글쓴이 현지조사.주채심이 3학년 때인 1927년에 사립학교가 폐교당했다. 해방 후 사립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를 기회가 없었는데, 1989년에 소안항일운동사료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잊지 않기 위해 노래를 한글로 필사해 두었다.

108) 주체심(여,78)1992년 4월 21일 글쓴이 현지조사.

압도(뒤)를 살페보니 철갑문이요
곳곳이 보이난것 불근옷이라
아침에 세수와 저역운동은
떼떼로 주난밥은 수수밥이요
밤마다 자는잠은 고생잠이라
수수밥이 맛이잇다 누가먹으며
고셍잠이 자고십다 누가자리요
슬프도다 가목에인난 우리형제들
이런고셍 저런고셍 악행당할떼
두눈에 눈물이 비오듯하나
장녠(장래의)일을 셍각하니 질거웁도다
여보시오 갓치나간 우리압길에
추호라도 낙심말고 나아갑시다[109]

1-6 <感動歌>
슬프도다우리民族야 字字孫孫泰樂하더니
사천년역사국으로 오날날이지겡웟일인가
<>가손가손로결혼한줄을 獨立萬歲우리소리에
우리손으로끈어버리고 바다이끌코山이動켓내

一問草거도내것아니요 무래한처진을대답못하고
半묘田地도내것못되니 空然한거대도그져밧도다
거검
한치벌내도마일발브면 조고만벌도내가다치면
죽기전한번은곰자가리고 내몸을반다시쏘코쥭난다
거
눈을두루살펴보시오 우리父母의한숨뿐이요
三千里우에사모친 것은 우리 學지의눈물뿐일새
거
山川草木도눈이잇시며 東海魚경도마얌이시면
悲慘한눈물이가득하것고 우리오갓치시러하리라

109) 주채심(여, 78), 1992년 4월 21일 글쓴이 현지조사.

은제江山이빗흘이럿고 이것시뉘죄야생각하여라
光明한日月이가득하도다 내죄외네죄의까닥이로다

사랑하난우리靑年아 비정한악습의뢰사상을
죽든지끼든지우리마암에 모도다한칼로끈어버리새

사랑하난우리 同胞야 와신상답을잇지말어셔
죽든지사든지우리마암에 우리國權을回復해보새

愛國精神과團體心으로 원수난비녹山과갓트나
肉단血천을무렵쓰면 우리압흘막지못하내

獨立旗自由種밧궈칠때에 大韓半島光明天地에
父母의한심은우심이되고 建國英雄이우리아인가[110]

2) 노동운동가계열

2-1
하늘이 사람을 내으사
각기 직분을 주었도다
허리에 베지고 조선에수갑은
사린강도 메소와 다름업스니
구먹(구멍)으로 주난밥을 먹고안전네
맡은바 직분을 다잘하니
가장 좋은 사람
세상에 귀하고 중한 것은
오직 우리의 노동이라
노동은 생활의 근본이니
힘쓰고 힘쓰세
온세상 형제들아
노래부르며 노동하자

110) 백성안 필사본 창가집 8-9쪽 수록.

자연천지가 활동함에 있어도
우리의 대목적[111]

2-2
민중의기 붉은깃발은
우리들의 시체를 싼다
높이들어라 붉은깃발을
그그늘에서 전사하리라
비겁한놈 갈테면가거라
우리들은 붉은깃발 지킨다

모스크바에 이깃발 날리고
시카고에 노래소리 높으다
불란서사람이 사랑하는기
중국사람이 이노래를 부른다
높이들어라 붉은깃발을
그그늘에서 전사하리라
비겁한놈 갈테면가거라
우리들은 붉은깃발 지킨다[112]

3) 서정가요계열

3-1 〈이별가〉
떠난다 떠난간다 나는 가노라
세월의 꽃동무를 남겨 두고서
삼추에 맺은마음 굳고 깊건만
+++ 못이겨서 떠나 가노라[113]

---

111) 김부기(남,85)1992년 6월 23일 글쓴이 현지조사.
112) 김진택(남76)전남 목포시 용해동 주공3단지,1993.4.22. 글쓴이 현지조사.
113) 소안 사립학교 교사 이시완이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교육운동가 계열

4-1
인간의 소년은 갈치기라
일어나라 소년아 소안뜰에서
우리들의 건투를 빛내자
새사람 새살림 새노력이
이재와 비로소 실시하리라
허위와 미신에 빠진민족은
진리와 과학으로 인도하고
수욕과 장타에 살륙장은
사랑의 낙원으로 화하리라
노동과 학문으로 직업을삼고
정의와 사랑으로 정신을삼아
같이먹고 같이살세 평화세계는
우리들이 눈앞에 완연하도다

금수강산 이천만 신상한민족
세상에 어느누가 장적할소냐
화기와 굳은마음 겁내지말고
활발히 내달아 심전하세
절사주사로 결박한줄을
우리의 손으로 끊어버리고
독립만세 우리소리에
바닥이끓고 산이동천해
풀레- 풀레-
만세! 만세! 만세![114]

114) 김영안(남,95),1992년 6월 24일 글쓴이 현지조사.

5) 백성안 창가집 수록 자료

소안도 민족해방운동가 자료들 중 문헌으로 전해오는 것은 백성안 필사본 창가집이 있다. 이 창가집은 소안도에서 일제시대 야학 창가 교본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필사자인 백성안(白聖安,또는 成安,남, 1893~1982)은 1893년에 소안면 이남리에서 태어났으며, 평생을 향리에서 살다 1982년에 작고했다. 1930년대에 야학운동을 수행했다. 특별히 민족운동을 위한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성장한 완도군 소안면의 전반적 사회정황, 그리고 당시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당연히 걸어야 했던 민족사의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인 야학운동의 길로 나섰다. 이 창가집은 1930년대 야학교사 시절에 사용한 것으로 그의 아들인 백종화가 소장해오다 1993년 10월 7일 글쓴이에게 제공했다. 백종화는 부친의 유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관했는데, 이책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일제 때 이 책을 보관하다 일경에게 발각되면 고통을 당했고 특히 해방 후 이책을 소지하다 경찰에 발각되면 좌익으로 몰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산속에 묻어 두거나 자기집 마루 밑을 파고 숨겨두거나 나뭇단 속에 묻어 두기도 하면서 보관해 왔다. 이 창가집의 두 쪽이 소안항일운동사료집에 수록되었다. 소장자인 백종화가 이 책을 글쓴이에게 공개한 이유는 이제 이러한 책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성안은 경성에서 출판된 원본 창가집을 필사하여 야학 창가교재로 활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실린 노래의 단편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신의 향촌사회에서는 이런 노래들이 대단히 유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뒷표지에 京城이라는 필사를 한 것으로 보아 출판된 창가집을 대본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다. 책의 크기는 가로 15.5㎝,세로21㎝, 앞표지와 뒷표지까지 합쳐 14쪽이며, 한지에 세필로 필사했으며 노끈으로 머리부분을 묶었다. 노래는 愛國歌,優勝旗歌,運動歌,父母恩德歌,修學旅行,勸學歌,感動歌,少年男子,大韓魂의 순서로 9편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노래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사료적 가치도 높다. 감동가와 같은 노래는 일제 강점기 전후 향촌사회에서 널리 불린 노래로, 당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정신을 극명하게 담고 있는 구전민요 계통의 노래다. 지금까지는 2,3절이 단편으로 알려졌을 뿐인데, 이 책을 통해 전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수록된 노래 중 작자를 알 수 있는 것은 없고, 대한혼은 1920년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을 뿐이다. 이로 보아 이들 노래의 대부분은

당시 민족 운동세력들이 공동으로 창작했거나 향촌사회에서 불린 노래들을 수집해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노래 가창 스타일은 당시 유행했던 창가조였다. 19세기 말부터 창가조의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국권을 상실해 가는 절박한 상황속에서 당시의 민중들은 전통민요의 창법보다는 빠르고 간명하게 가사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이 창법을 선택했다고 생각된다.

2. 자료의 해석

소안도 사람들이 민족운동노래를 연행한 시기가 어느 때부터인지 확실치 않지만 김사홍이 소안도 토지계쟁사건에서 소안면의 대표로 나섰던 것이 1909년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그전부터 민족운동노래를 연행했을 개연성은 있다. 구술에 의하면 야학이 실행되던 시기인 1910년 전후부터 노래를 배운 것은 확실하다. 당시 배운 노래들은 애국가, 감동가, 독립운동가, 등 민족운동 계열의 노래들이었다.

애국가 계열의 노래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집중적으로 창작된 노래들로서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된 것이 있고, 향촌사회와 각 지역세서 특정한 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채 불린 것들이 있다. 19세기말, 20세기 초 국권상실의 위기에서 농민, 애국지사들이 애국가, 독립운동가를 지어 불렀고, 그중 일부가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는데,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자료1-1〉 독립운동가는 민중의 공동창작으로 구전으로 연행되던 노래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운동가, 권학가, 부모은덕가, 대한혼 등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런 노래들은 중화학원에서 수학한 사람들이 마을에서 약학을 실행하는 1920년대부터 성창되기 시작했다.

〈자료1-6〉 감동가는 글쓴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문이나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전으로 전승, 연행된 노래로 생각된다. 최초의 문헌정착은 백성안필사본 창가집인 것으로 생각되면, 여기에 전편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계몽기의 시가집』에 이 노래의 2,3절이 〈토지조사에 반대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고,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민요조로 연행된 노래라고 기술하였다.[115] 그리고 『조선문학개관』 제2권에서는 1917년 경 김형직이 만든 〈정신가〉라는 노래로 1절과 5절이 소개되었다.[116]가사

115) 김학길, 『계몽기시가집』, 현대조선문학선집6(문예출판사,1909),13~14,45쪽 참조

의 맥락으로 보아 이 노래는 독립 애국가가 성창되던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침탈에 대항하여 새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운동세력들이 부른 노래로 생각되며, 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동창작으로 생각된다.

노래가사의 개사작업은 거의 모든 노래에 걸쳐 이루어 졌다. 감동가의 경우도 백성안 필사본의 노래, 조선문학개관 수록 노래, 계몽기시가집에 소록된 노래의 가사가 약간씩 달리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수용자에 따라 개사작없이 이루어졌던 결과로 생각된다. 그리고 1920년대에 부른 〈자료 1-3〉 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조선문학사에서는 이를 토벌가, 혁명가의 아내 수동이 어머니[117]라 했는데, 월항리에서 부른 노래에는 수동이 어머니라는 시적 자아를 통해 일제의 총칼에 희생된 민중의 참상과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는 향촌사회 부녀자들의 심정을 애절하게 노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향촌사회에서 전통민요를 수용하는 경우 반드시 자기 마을의 현실생활에 맞게 가사와 가락을 개량하여 수용한 노래연행 관습의 반영인 것으로 생각된다.

1920년대에 들어 소안도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한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 초기 수용 단계에서 전승된 노래의 사설을 그들의 처지에 맞게 개사하거나 알려진 곡에 가사를 창작하여 부르거나 자신들의 처지에 맞는 노래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 졌다. 알려진 곡에 가사를 창작하여 부른 것도 이 시기 소안도에서 노래를 수용한 한 방법이었다. 가령 클레멘타인(넓고넓은 바닷가에)에 맞춰 〈자료 1-2〉 , 〈자료1-4〉 등을 불렀다. 이 경우 창법은 전통적인 음영리듬에 맞춰 불렀다.

새로운 노래의 창작은 1920년대 후반에 이루어 졌다. 1927년 사립학교가 폐교당하고 많은 청년들이 사립학교 복교운동과 민족운동과정에서 투옥당하자 수동이 어머니의 노래와 함께 옥중가를 불렀다. 옥중가는 소안도의 영웅 송내호를 추모하여 만든 노래로 판단된다. 주채심의 구술에 의하면 옥중가를 부르면 오빠 생각이 나서 저절로 슬퍼진다고 한다. '친오빠가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가 옥중가를 부르라고 하면 불렀다. 그 노래라도 들으면 위안이 된다

116)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 2(인동,1986,1988)12~13쪽.

117) 1926~1945년 조선문학사에서는 토벌가라는 제목으로 가사가 소개되는데, 월항리의 것과 후반부가 다르다.월항리에서 부른 노래는 향촌사회에서 부녀자들이 민족운동에 나섰다가 희생당한 남편을 생각하는 기다림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면 조선문학사에 소개된 토벌가의 후반부는 '울지말자 아이들아 울지를 말자/운다고 이원한이 가시어지랴/저산을 넘어가서 살길을 찾자'(토벌가 5절)라고 노래하여 민중의 투쟁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1920~30년대에 공연된 연극'혁명가의 아내 수동이 어머니'와 가사의 내용이 일치되며, 가사의 구성되 어머니와 수동이의 대화체로 되어있어 연극적 구성을 지니고 있다.(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26~1945년 조선문학사』 (열사람,1981),151~152쪽)

고 했다.

소안도 사람들은 민족운동노래를 다른 유의 노래보다 더 좋아했다. 왜냐면 그들이 성취하려는 세계 - 민족의 독립과 평등한 사회이 건설 - 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진식의 구술에서 그런 심성을 찾을 수 있다.[118)]

'옛날 노래라면 여그서 주로 불렀던 노래는 사립학교서 불렀던 독립운동가, 애국가 그런 것이제,.....우리가 대개 어렸을 때는 그런 노래 따라 불렀제라. 그리고 그 당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민요보다도 혁명가, 옥중가를 불렀제, 옥중에 가서 생활하는 혁명수가 있다고 그라믄 이불을 안덮고 잤다고 그래요 같이 고생한다고,.....그당시에는"천지정기 부름쓴 계림남아야....."그것이 시발이 됐어요.

소안도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에 당시의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민족운동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는데, 전통민요로는 당시 월항리 사람들의 의식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구술에서 이미 전통민요가 당대의 사회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내지 못했다는 숨어있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소안도 사람들이 보인 이런 반응은 비단 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이러한 경향은 사회이 전반에 걸쳐 일어났다고 생각된다.

Ⅵ. 논의의 정리

민족해방운동가가 특별히 왕성하게 전승된 소안도는 서남해 해로의 요충지에 위치한 섬이다. 다양한 선박들이 기항하고, 또 배를 타고 외지를 왕래하기 때문에 당대의 선진적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천민들의 도피굴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소안도는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든 변혁의 섬이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어업의 융성과 함께 섬들이 경제적으로 부각되면서 농업생산력과 융합되어 안정된 경제력을 확보한 섬으로 자리잡았다. 소안도 주민들은 경제적 여유를 교육에 집중하여 사립학교와 학원, 야학을 세웠다. 그리고 외지에서 능력있는 교사를 초빙하여 선진적 의식과 선진적 문물을 수용하였다.

지식인과 기층 민중출신이 융합된 주민들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사립학교와 학원, 야학 교육을 통해 자유와 평등, 민주적 분배, 노동의 의미들을 이

118) 김진식(남,64,소안면 월항리)구술, 1992년 6월 22일,글쓴이 현지조사.

념화해서 교육하고 수용해 가면서 깨우쳐 나갔다. 당시 이들이 설정한 저항 대상은 다양하다. 주된 정항 대상은 일제였으며, 섬을 소유한 조선 왕궁의 궁방, 불평등, 신분사회 등이었다. 일제를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양반사회의 구호와는 차별되게 민중들의 다양한 요구가 수용된 저항 대상들을 성정하였던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소안도 주민들은 일제에의 저항, 민족의 해방, 민중의 해방, 평등사회 구현 등 오늘날 우리 사회가 문제삼고 있는 주제들을 1세기전 이미 설정하고 투쟁한 것이다.

주민들의 경험과 의식은 민족해방운동가의 가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사설에 표현된 주된 주제들은 민족과 민중 해방, 평등사회 구현, 억압 타파, 국권회복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에서 제시한 자료들의 가사를 분류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특히 당시 양반사회가 내세웠던 국권회복보다는 자유, 평등,민주,노동해방,계급해방,분배문제에 큰 관심과 보다 높은 가치를 도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창가가 야학이라는 교육기구를 통해 마을로 들어와 주믄들과 습합하면서 주민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재생산된다.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전통시대의 참요가 사용했던 비유,상징의 소극성을 극복학고 목표를 극명하게 제시하였으며, 서정성이 강화되었다. 즉 우회적 표현방식에서 직설적이고 서정적 표현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민족해방정신의 계승,억압받는 민중에 대한 사랑, 동지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정적 문체에 담겨 표현됨으로써 비장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래의 수용과 전승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나 당시 민족해방운동가의 전승과정을 잘 알아볼 수 있다. 소안도 주도세력들에 의해 주민 교육이 계획되고 초청된 유능한 교사들에 의해 민족해방운동가가 수용된다. 최초에는 중화학원을 통해 교육되고, 이어서 소안사립학교에서 교육된다. 그러나 정식 교육과정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비공식적 교육에 의해, 다시 말해서 사사롭게 수행되었다. 그리고 1927년 사립학교가 폐교당하면서 각 마을로 학원과 야학이 확대, 강화되어 민족해방운동가의 교육과 연행이 확대 재생산된다. 이 시기 교재가 사용되었는데, 중화학원과 사립학교에서는 교사들은 인쇄된 교재를,학생들은 필사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했다. 그리고 야학에서는 교사는 필사한, 또는 구전으로, 학생은 구전으로, 또는 필사해서 수용, 전승한 것으로 판단 된다.

악곡은 창가조였다. 20세기 초 조선민족의 화두인 일제 저항,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과거에서 벗어나 혁신적 의식과 문화적 도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 시기에 수용된 것이 창가라고 생각된다. 특히 민족해방운동가와 같은 혁

명성이 짙은 정치민요는 내용이 혁신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형식으로 창가식 가창법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안도 민족해방운동가는 20세기 초 민족과 민중해방, 억압 타파, 평등과 자주적 세계관 구현, 국권회복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감당한 노래였다고 평가된다. 또 이 자료들은 조선시대의 참요와 비교되면서 정치민요의 진행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류의 민요에는 1세기를 앞서가는 민중들의 의식이 갈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민요는 미래를 가늠하는 지표하는 확신을 갖게 한다. 이런 류의 노래들은 민요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가장 민중의 심성 깊이 자리잡은 노래들, 오직 민중들만의 노래다. 예를 들어 노동요는 생산력의 향상 이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 지배층과 타협하는 면이 있지만 정치민요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해방운동가는 권력의 중심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는 노래들이라고 판단된다.

[주제어] 일제 강점기,항일민족해방운동노래,자유와 평등권,완도군 소안도,민주주의,야학창가.

참고문헌

단행본

김학길,『계몽기시가집』,현대조선문학선집6.문예출판사,1990.

박종원,류만,『조선문학개관』2,(1986)1988,인동,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1926~1945년 조선문학사』,열사람,1981.

조성일,『민요연구』,연변 인민출판사,1983.

최철 편,『한국민요론』,집문당,1986.

역사민속학회,『민요와 민중의 삶』,우석출판사,1994.

논문

나승만,『소안도 민요사회의 역사』,『도서문화』10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3.

나승만,『민요사회의 사적 체계와 변천- 전남지역의 민요사회를 중심으로』,『민요와 민중의 삶』,역사민속학회, 1994.

나승만,『일제 강점기 항일민족해방운동노래의 주체화 과정』,『배종무총장퇴임기념

사학논총』,배종무총장퇴임기념사학논총간행위원회,1994.
박연희,『정치민요의 개념』,『한국민요론』,최철 편저, 집문당,1986.
박찬승,『일제하 소안도의 항일민족운동』,『도서문화』11집 완도 소안도지역의 사회문화적 성격 연구,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3, 84~85쪽.
손종흠,『민요의 현대적 의미』,『한국민요론』,최철 편저, 집문당, 1986.
이해준,『소안도의 역사문화적 배경』,『완도소안도지역의 문화성격』,제7회 도서문화심포니움,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3.
최성락,『소안군도의 선사유적』,『완도소안도지역의 문화성격』,제7회 도서문화심포니움,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1993.

현지조사 구술자료
김고막(여,89세, 소안면 월항리 출신,노화읍으로 출가,광주시 북구 용봉동 거주)1993년3월25일
김부기(남,95세,소안면 부상리)1992년 6월24일
김진택(남,71세,소안면 월항리 출신,목포시 용해동 주공3단지 아파트)1993년 4월 22일
김한호(남,82세,소안면 월항리)1993년3월24일
백종화(남,73세,소안면 월항리)1993년10월7일
이월송(남,84세,소안면 소진리)1992년6월23일
주체심(여,78세,소안면 비자리)1992년4월21일

신문자료
『조선일보』,1927년 5월 17일,『절도유일의 교육기관 돌연 폐교를 명령 - 전남완도에 돌발한 괴사건 진상형세 험악, 경계엄중』
『동아일보』,1927년 5월 17일.『소안학교 돌연폐쇄』

5. 김경자 감독 프로필

2009년 KBS열린채널 방영작 다큐멘터리 <민수의 대인시장> 연출

2009년 서울문화예술위원회 지원공모작 다큐멘터리 <나는 당신을 봅니다-예술과 시장의 일상적 만남> 연출

2010년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국제경쟁부문상영작 다큐멘터리 <대인시장선인장할머니> 연출

2011년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국제경쟁부문상영작 다큐멘터리 <나 지금 여기 있어> 연출

2011년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공모작 극영화 <어떤날은> 연출

2012년 CMB 방영작 다큐멘터리 <꿈꾸는 다문화시대> 연출

2012년 518기념재단 문화예술지원공모작 다큐멘터리 <세상의 슬픈 음악 그리고 저항> 연출

2013년 CMB 방영작 다큐멘터리 <운남의 햇살들> 공동연출

2013년 성평등관련영상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편견> 연출

2015년 광주여성재단지원 여성문화활성화를 위한 3.8세계여성의날 교육콘텐츠 영상 <그녀들에게 힘을> 공동연출

2015년 광주독립영화제 개막작 <소안의 노래> 연출

2015년 함평양민집단학살 교육용영상 <함평양민집단학살> 연출

● 이메일: tanggle9@hanmail.net

INSTITUTION FOR MARINE & ISLAND CULTURES

INSTITUTION FOR MARINE & ISLAND CULTURES

INSTITUTION FOR MARINE & ISLAND CULTURES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지원 사업

제2회 도서문화연구원 섬의 인문학연구단(HK)
섬의 인문학 콘서트 : 다큐영화, 소안의 노래

일시: 2017. 5. 11.(목) 16:00

장소: 70주년기념관 정상묵 국제컨퍼런스룸

주최· 주관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후원: 한국연구재단

문의: 도서문화연구원 행정실 ☎(061)260-1703

발행: 제일기획 ☎(061)277-1900

이 자료집은 200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61-A00007)